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논문

제주시 원도심 옛길 걷기
스토리맵 제안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박 켜 마

2018년 2월



제주시 원도심 옛길 걷기 스토리맵 제안 연구

지도교수 황 경 수

박 켜 마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박켄마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梁 鎭 健



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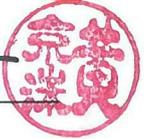
김 태 호



위

원

황 경 수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7년 12월



A study on making story map for explaining Jeju City old route

Park, Gem-Ma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oo Hwang)

A thesis submitted in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Education(Storytelling)

2017.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ate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II. 공간 스토리텔링 관련 이론적 배경	6
1. 공간스토리텔링의 개념	6
2. 스토리맵의 사례	11
3. 옛길 코스 사례 분석	13
1) 제주올레길	15
2) 제주성안유배길	16
3) 제주기독교순례길	17
4) 제주천주교순례길	18
5) 탐라옛골목길	19
6) 원도심 탐험길	20
III. 원도심 옛길 공간 스토리텔링 스토리맵 제안	27
1. 연구 대상지 옛길 현황 분석	27
2. 장소성 분석	31
3. 스토리 부여	43
1) 제주를 만나다	44
2) 제주를 공부하다	47
3) 제주를 체험하다	48

4) 제주를 위로하다	51
5) 제주를 꿈꾸다	52
4. 공간구성 : 스토리맵 제작	54
IV. 결론	60
[참고문헌]	62

표 목 차

<표 1> 연구의 흐름도	3
<표 2> 제주시 도시쇠퇴도 종합 분석결과	5
<표 3> 공간 스토리텔링 정의	7
<표 4-1> 김영순의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	8
<표 4-2> 김진철의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	9
<표 4-3> 본 연구의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	10
<표 5> 선행연구	13
<표 6> 제주시 원도심 옛길 걷기코스	14
<표 7> 제주시 원도심 옛길 걷기코스 분석	22
<표 8> 연구 대상지 내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29
<표 9> 연구 대상지 내 제주도지정 문화재 현황	30
<표 10> 테마 스토리 라인	43

그림 목 차

<그림 1> 제주시 원도심의 범위	4
<그림 2> 박승희의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	8
<그림 3> 잘 생긴 서울지도	12
<그림 4> 제주올레길 표시	15
<그림 5> 제주성안유배길	16
<그림 6> 제주기독교순례길 표시	17
<그림 7> 제주천주교순례길 표시	18
<그림 8> 탐라옛골목길 걷기 체험 안내	20
<그림 9> 원도심탐험길 행사 사진	20
<그림 10> 제주올레길	23
<그림 11> 제주성안유배길	23
<그림 12> 제주기독교순례길	23
<그림 13> 제주천주교순례길	24
<그림 14> 탐라옛골목길	24
<그림 15> 원도심탐험길	24
<그림 16> 원도심 옛길 걷기코스 종합	25
<그림 17> 제주성내 마을 이름과 옛길 이름	27
<그림 18>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정경	31
<그림 19> 2017년 건시대제	32
<그림 20> 광양당 터	33
<그림 21> 제주성지	34
<그림 22> 굴림서원	34
<그림 23> 박씨초가	35
<그림 24> 제주중앙성당	36
<그림 25> 옛 소라다방 건물	37

<그림 26> 향사당	38
<그림 27> 관덕정	38
<그림 28> 굴림당과 북과원	39
<그림 29> 복원된 고씨가옥	41
<그림 30> 산지천	41
<그림 31> 도민속자연사박물관	44
<그림 32> 삼성혈	46
<그림 33> 광양당 표석	46
<그림 34> 제이각	47
<그림 35> 오현단 유천석	48
<그림 36> 박씨초가 우영발	48
<그림 37> 한짓골 & 중앙성당	49
<그림 38> 성내교회	50
<그림 39> 옛 현대극장	50
<그림 40> 4.3 문화예술축전	51
<그림 41> 입춘굿놀이	51
<그림 42> 고씨가옥과 산지천 갤러리	52
<그림 43> MAP 앞면	54
<그림 44> MAP 뒷면 전체	56
<그림 45-1> MAP 뒷면 1	57
<그림 45-2> MAP 뒷면 2	57
<그림 45-3> MAP 뒷면 3	58
<그림 45-4> MAP 뒷면 4	58
<그림 46-1> 접었을 때 1	59
<그림 46-2> 접었을 때 2	59

제주시 원도심 옛길 걷기 스토리맵 제안 연구

박 켜 마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황 경 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여 원도심 옛길 걷기 스토리맵을 제안하는데 있다. 스토리맵을 활용하여 선인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 지역 가치의 재조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여러 단체와 기관 등에서 원도심 옛길 유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 코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적지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제주의 자연적 요소가 결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지 내에서 도심 속 자연적 요소를 부각시켜 기존의 걷기 코스들과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도심은 제주에 들이닥친 개발 열풍으로 역사문화적, 자연적 자원 요소를 지닌 장소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 장소를 기억하는 인물들도 사라지고 있다. 유적이 사라진 옛 장소 인근에 표석들은 남아 있지만, 세대 간 이야기가 단절 된다면 표석만으로는 과거의 이야기와 연결이 쉽지 않다. 다음 세대들에게 탐라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바로 제주시 원도심이다.

제주시 원도심 옛길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기반으로 정주민들과 다음세대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낼 연결고리로 활용하기 위한 원도심 옛길 걷기 스토리맵 제안 연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스토리맵을 정의하여 원도심의 장소 자산을 공간 스토리텔링의 단계로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스토리맵을 제안 하였다.

둘째, 제주시 원도심 옛길 걷기 코스 사례들을 분석하고, 코스를 지도로 표기하여 차이점과 공통점 및 걷기 코스들의 특징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

하는 자료로 참고하였다.

셋째, 문헌자료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원도심 옛길 자원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연구 대상지의 장소자산을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된 장소자산을 기반으로 ‘제주를 만나다’, ‘제주를 공부하다’, ‘제주를 체험하다’, ‘제주를 위로하다’, ‘제주를 꿈꾸다’ 순으로 테마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공간 구성단계에서 스토리맵을 제작하였다.

결론에서는 제작된 스토리맵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스토리맵 제안 연구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관광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원도심 옛길을 탐방 할 수 있는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활용 범위를 넓혀갈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making story map for explaining Jeju City old
route**

Park, Gem-Ma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oo Hw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tory map of Jeju old downtown area based on space storytelling using resources of old downtown area in Jeju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old downtown Walking Story Map based on spatial storytelling using resources in the old downtown area of Jeju. Using the story map, we provide information that can walk along the trajectory of the life of the ancestors, and seek to revitalize the walk through the old town by reexamining local values.

Many organizations are conducting a variety of walking courses that utilize the resources of ancient towns and villages, but most of them are centered around historical sites and lack the natural elements of Jeju.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natural elements in the inner cities within the study site and present their differentiation from traditional walking courses.

As Jeju development craze, places with historical,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

elements are disappearing and people who remember the place are disappearing.

Although the monument are still remaining in the Jeju city old downtown places, it seems that it is not easy to convey the past story to the current generation and next generation. From Tamna Period, Joseon Period to Modern Period, and from Story of My Parents' Generation to modern generation, In other words, Jeju old downtown area is a space where Jeju's history and culture can be told and shared with the next generation.

Based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Old downtown area in Jeju, I used it as a link between residents and future generations and A study on making story map for explaining Jeju City old route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way.

First, we defined the concept of space storytelling and story map, and analyzed the place assets of old downtown as a stage of space storytelling, and suggested story map as a result.

Second, it analyzed the old hiking course cases in Jeju and drew differences, similarities, and characteristics of walking courses using maps and referred to them as data that would form the storyline of the study.

Third, through analyzing literature data and field trips, we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old downtown area and derived the site assets of the study site.

Fourth, based on the derived location assets, the theme story line is composed of 'Meet Jeju', 'Study Jeju', 'Experience Jeju', 'Comfort Jeju', and 'Dream Jeju', And the story map was produced at the spatial composition stage.

In conclusion, we suggested how to use the produced story map.

This story map proposal study aims to create a positive image of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next generation on the local area, and to raise the pride of local residents on the local area.

Furthermore, tourists will be provided with living information that will enable history and nature to explore the old downtown streets individually.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broaden the scope of future use and provide a model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 원도심 옛길 걷기를 통해 지역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적 연계를 통해 자원화하기 위한 스토리맵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제주시 원도심이 지니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 브랜드화 하고 더 나아가 관광자원화 자원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¹⁾이 공식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원도심 옛길에 대한 관심이 주요 화두가 되면서 역사문화를 찾아 걷는 원도심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각 도시마다 원도심 옛길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제주시 원도심 옛길은 탐라시대부터 조선시대, 근대시대 유적들과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 지자체 및 민간단체들이 옛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원도심 규모는 작지만 반면 신화, 조선시대 유배 이야기 등 제주만의 문화가 깃든 이야기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에서 2013년 2월부터 ‘기억의 현장에서 도시의 미래를 보다’라는 타이틀 제주시 원도심 탐험을 시작하면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걷기를 대중화하는 작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후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특정한 날에 주제에 맞는 코스를 정해서 원도심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제주 원도심에는 제주올레길, 제주유배길, 제주천주교순례길, 제주기독교순례길 등이 만들어졌으며, 도심올레길도 조성 중이다.

2017년 9월 25일,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 옛길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 ‘제주 길의 가치 찾기’ 개최하였고,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 옛길 조성 관

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79번 과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다. 2017년 9월 14일 국토부 발표, 제주의 소리(2017.09.14.) 이승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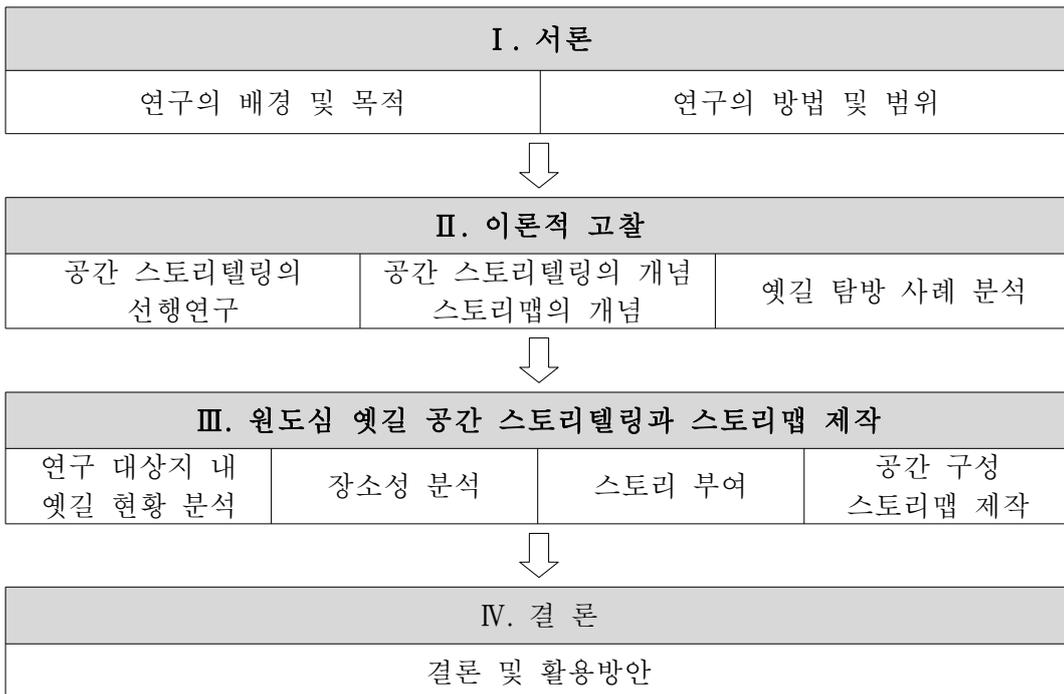
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중이다.

이렇듯 제주시 원도심 옛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그에 맞춰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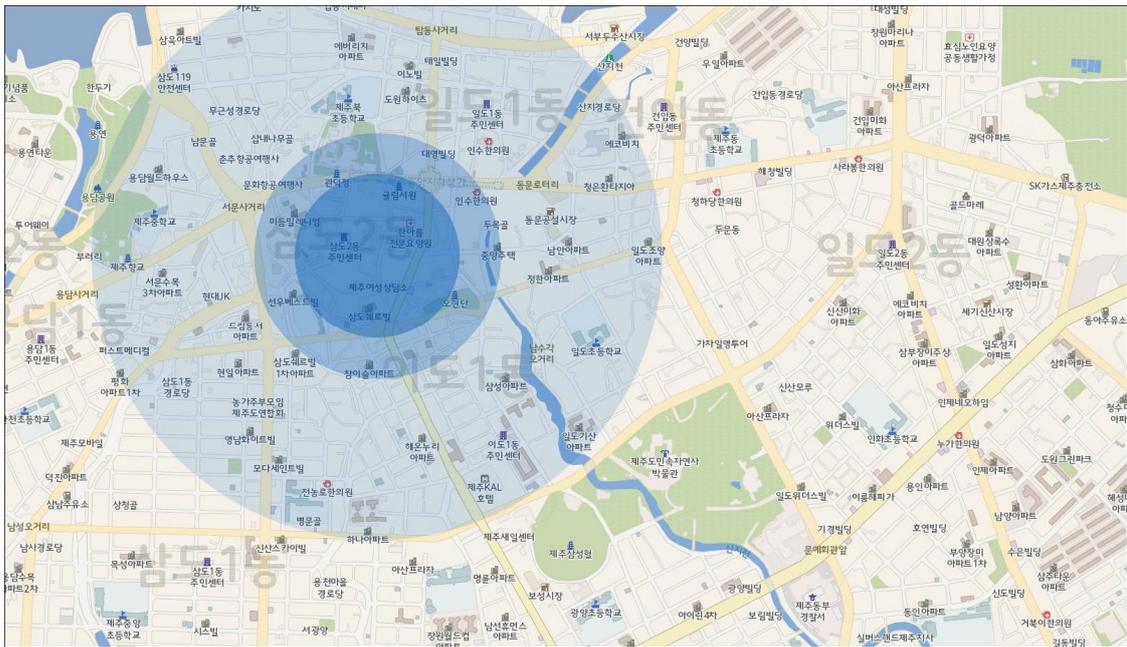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스토리맵 제안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과 범위를 서술 할 것이고,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선행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스토리맵의 개념을 정리할 것이다. 이어서 문헌 연구를 통해 공간 스토리텔링 구성 단계를 분석의 틀로 제주도 원도심 옛길 탐방 코스 사례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3장에서는 문헌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사진을 촬영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옛길 현황분석과, 장소성을 분석 후 스토리를 부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 구성을 하여 스토리맵을 제안할 것이다. 4장 결론에서는 활용방안 및 제언을 할 것이다.

<표 1>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는 제주시 원도심²⁾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은 옛 제주성지주변을 공간적으로 하며, 그 이후 발전한 인근 지역을 칭하는 것으로 통칭되고 있다. 과거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역사,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도청과 시청 등 관공서가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점차 쇠락하면서 행정 중심지 기능은 상실한 지역이다. 다행히도 고밀집적 개발의 대상지에서 유보되면서 과거 역사 문화 유적은 남아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제주시 원도심의 범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활용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공간적 범위는 중앙로, 칠성로, 남문로 등 옛 제주성과 그 주변으로, 행정구역상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까지 4개 동을 범위로 한다. 공간적 범위를 정할 때, 아래 <표 2> 제주연구원의 도시쇠퇴³⁾도 종합분석 결과를 참고하였다.

도시쇠퇴도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정한 지역이 제주시 원도심에서 가장 쇠퇴한 곳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위별로

2) 구도심(舊都心)은 낡고 오래되었다는 부정적 의미, 원도심(原都心)이란 신도심(新都心)과 대조되는 용어로 예전에 부흥했던 도심이라는 뜻으로 '원도심'으로 표기
3) 엄상근(2013),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연구」, 제주연구원, 5~6쪽

도시재생사업 우선 추진 구역으로 분류⁴⁾된 5개 동 중에서 지리적 여건 상 용담 1동을 제외하고 4개 동으로 범위로 했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원도심은 탐라시대부터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이었으며, 관련 유적과 이야기들이 원도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를 탐라시대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역사의 시간대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공간 스토리텔링의 대상을 설명할 때 참고자료로 언급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셋째, 내용적 범위는 연구 대상지 내 탐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유적지 및 이야기들이다. 탐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남아 있는 공간시설물과 역사성, 상징성, 교육성이 있는 장소들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도심 속 자연을 내용으로 할 것이다.

<표 2> 제주시 도시쇠퇴도 종합 분석결과

구분	분야별 점수			종합도시쇠퇴 점수(합)	순위
	인구사회	물리환경	산업경제		
일도1동	39.30	17.12	33.73	90.16	1
용담1동	31.39	16.73	32.88	81.01	2
삼도2동	28.89	16.11	31.94	76.95	3
건입동	28.70	15.56	31.24	75.50	4
이도1동	27.63	12.76	30.89	71.28	5
용담2동	26.67	12.47	29.30	68.45	6
봉개동	26.20	11.91	28.83	66.94	7
오라동	25.56	11.32	25.09	61.97	8
화북동	24.33	11.30	24.53	60.17	9
삼도1동	23.18	8.77	22.82	54.77	10
이호동	22.57	8.74	21.38	52.68	11
평균				51.67	
일도2동	21.33	8.04	20.91	50.27	12
아라1동	20.60	7.50	20.75	48.84	13
도두동	12.77	6.36	17.11	36.24	14
이도2동	11.68	5.21	13.28	30.17	15
삼양동	11.07	2.91	12.16	26.14	16
연 동	4.74	1.34	10.13	16.21	17
외도동	3.14	0.00	7.09	10.23	18
노형동	0.00	0.00	3.77	3.77	19

출처 : 업상근(2013),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연구」, 제주연구원, 58쪽

4) 업상근(2013), 앞의 책, 58쪽

II. 공간 스토리텔링 관련 이론적 배경

1.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

공간 스토리텔링은 “어떤 공간의 이야기(story)가 계속(ing)해서 말해진다(tell)⁵⁾”는 의미로, 화자의 관점으로 공간 생산자가 공간 소비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행위, 청자의 관점으로 공간 속에서 체험을 통해 이야기가 재해석 되고, 재해석을 통해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김은선(2009)는 “공간을 텍스트로 두고,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정서적 상징요소들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⁶⁾”이라고 했다. 즉, 공간을 형성하는 상징요소들을 이용해서 목적이 있는 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박승희(2011)는 “공간의 맥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장소성을 특정한 테마로 구체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알맞은 이야기를 발굴하거나 구성하는 것은 공간 스토리텔링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⁷⁾”라고 했다.

김영순(2010)은 “공간 생산자들이 공간을 통해 이야기 하고, 공간 소비자가 공간 속에서 체험하고 이야기를 부여하는 행위⁸⁾”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간 생산자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은 공간을 제공하면, 공간 소비자가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체험하고 체험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공간스토리텔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선행 연구자들이 정의한 것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5) 김영순 (2010), 「공간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재구성과 공간 스토리텔링-검단과 춘천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학회 (19), 42쪽
6) 김은선 (2009), 「공간 스토리텔링 기획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 논문 25쪽
7) 박승희 (2011), 「지역 역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방향과 실제」, 한민족어문학회 (63), 414쪽
8) 김영순.정미강 (2008), 「공간 텍스트로서 ‘도시’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텍스트언어학 (24), 177~178쪽

<표 3> 공간 스토리텔링 정의

선행연구자	공간 스토리텔링 정의
김은선 (2009)	공간을 텍스트로 두고,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정서적 상징요소들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
박 승 희 (2011)	공간의 맥락분석을 통해 도출된 장소성을 테마로 구체화시키고 이야기 발굴 또는 구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단계
김 영 순 (2010)	공간 생산자들이 공간을 통해 이야기 하고, 공간 소비자가 공간 속에서 체험하고 이야기를 부여하는 행위

공간 스토리텔링의 역할에 대해 선행 연구자들은 공간의 맥락과 장소성이 신화나 전설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공간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영순(2010)⁹⁾은 공간 스토리텔링에 대해 “공간과 인간 사이에 이야기를 연결하는 교량이자, 이야기의 생성을 촉진하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하며 공간 스토리텔링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단계는 청자의 관점으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공간의 의미적 맥락을 분석하여 장소성을 도출하고,

둘째 단계는 도출된 장소성을 바탕으로 공간에 존재하는 역사문화적 이야기 및 환경 등에 관한 이야기를 부여하고

셋째 단계는 화자의 관점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 김영순 (2010), 앞의 책, 36쪽

<표 4-1> 김영순의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장소성 도출 (청자의 관점에서)	이야기 만들기 (청자의 관점->화자의 관점)	공간 구성 (화자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의미적 맥락 파악 - 공간의 질과 결 파악 - 지리적 관찰, 현상학적 관찰, 인터뷰,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역사 이야기 - 생태, 인문, 사회적 환경 -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적인 공간 - '선'적인 공간 - '면'적인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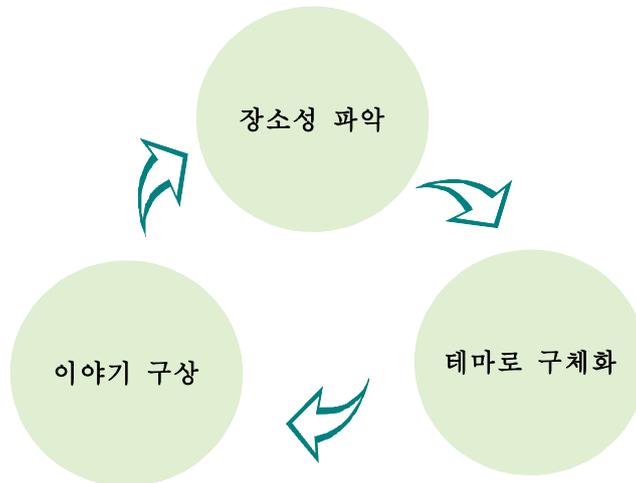
출처 : 김영순 (2010), 「공간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재구성과 공간 스토리텔링-검단과 춘천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36쪽 요약

박승희(2011)¹⁰⁾는 공간 스토리텔링을 인간과 공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의하면서 공간 스토리텔링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단계는 공간의 맥락 분석을 통해 장소성을 파악하고

둘째 단계는 장소성을 특정한 테마로 구체화시키고

셋째 단계는 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발굴 또는 구상하는 것이 공간 스토리텔링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정의 하였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박승희의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

10) 박승희 (2011), 앞의 책, 413쪽

김진철(2011)은 공간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장소자산을 기반으로 한 장소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간 스토리텔링이 다시 장소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¹¹⁾고 정의하며, 공간 스토리텔링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단계는 장소자산의 분석이다.

둘째 단계는 스토리의 발굴이다.

셋째 단계는 공간 기획이다.

위의 설명을 표로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김진철의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장소자산 분석	스토리 발굴	공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환경적 요소 - 인적·문화적 요소 - 정서적·상징적 요소 - 상대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 목록 작성 - 테마 스토리 발굴 - 스토리 테마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의미화 - 공간 구성

* 출처 : 김진철(2011) 「제주도 대정성지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17쪽

선행 연구자들의 이론을 종합해보니,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는 연구자들이 적용하는 보편적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도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단계로 정리하면 문헌 자료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장소자산 등을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그 장소들에 존재하는 신화, 역사, 문화, 자연 등의 이야기를 도보여행자들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발굴한 스토리를 지리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간 구성할 것이다. 표로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11) 김진철 (2011), 「제주도 대정성지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제주대학교 석사 논문 16~17쪽

<표 4-3> 본 연구의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장소성 분석	스토리 부여	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 장소자산 - 역사적 장소자산 - 문화적 장소자산 - 지리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화 스토리 - 역사 스토리 - 문화 스토리 - 자연 스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 - 공간 구성

2. 스토리맵의 사례

공간 스토리텔링 결과물을 활용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간 스토리텔링을 장소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도심재생의 기법 및 관광자원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간 스토리텔링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브로셔나 안내책자 또는 스템프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제공되기도 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토리맵이다. 스토리맵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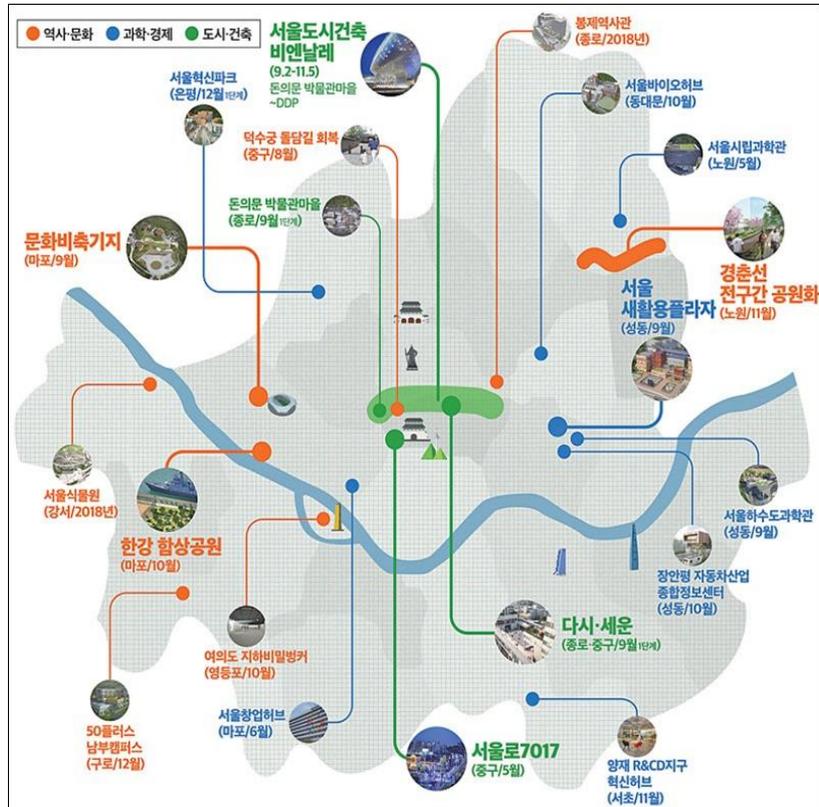
스토리맵에 대해서 홍소정(2015)은 “이야기 문법의 구성요소들을 그림과 글로 기록하여 이야기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시각적인 도구”¹²⁾ 라고 정의했다.

스토리맵 지도는 일반지도와 달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도로,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환경, 인구통계학,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¹³⁾. GIS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스마트폰이나 PC 등 인터넷으로 실시간 접속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맵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브로셔 타입의 스토리맵도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다. 디지털 스토리맵과 연계해서 실시간 공간 체험자들이 온라인상에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통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스토리맵을 활용한 사례로는 <그림 3> ‘잘 생긴 서울 지도’를 들 수 있다. 최근(2017년 9월) 서울시는 서울의 역사·문화, 과학·경제, 도시·건축 등 분야별 명소 중 올해 새로 문을 열었거나 개장을 앞둔 곳 20곳을 추천한 ‘잘 생긴 서울지도’를 공개했다. 지도 공개 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인증샷 공유, 온라인 투표, 사진공모전 등의 이벤트를 개최해서 새로이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알렸다. 맵을 매개체로해서 온라인으로 연결, 체험자들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온라인 투표에 5만 8857명이 참여를 했으며, 그 중 1만 84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명소는, 1959년부터 일반인 통행이 제한되던 100m 구간이 추가 개방된 ‘덕수궁돌담길’ 이다.

12) 홍소정 (2015) 「스토리 맵을 활용한 이야기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이야기 산출 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 논문, 3쪽

13) 테크놀로지 <http://www.ciokorea.com/> (2012.11.22.) 자료 참고

서울시 사례처럼 스토리맵과 디지털 매체를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자들의 경험을 실시간 공유하는 최신 트렌드를 활용한 공간 스토리텔링 활용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3> 잘 생긴 서울지도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제주시 원도심은 탐라시대부터 근대까지 다양한 흔적과 이야기가 남아있는 핵심 장소로 역사문화적 자원이 풍부하지만, 타 지방 원도심에 비해 원도심의 면적이 좁은 편이라 안내자 없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향유자 스스로 찾아 걸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도에 그림과 글로 이용하여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맵을 형식이 적합하므로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3. 옛길 코스 사례 분석

도내, 그리고 국내 원도심 활성화의 성공 사례 분석을 위해 도시재생, 원도심, 공간 스토리텔링 관련한 보고서와 연구논문 등을 아래 <표 5>와 같이 참고하였다.

<표 5> 선행 연구

도시재생 관련 연구	엄상근(2013)	도시재생, 원도심 개념정리 제주도 도시재생방향 제시
	김 준(2016)	도시재생, 전주한옥마을과 도시재생 실태, 성과와 주민주도형으로 변화 등 과제 제시
원도심 관련 연구	강경희,김태일,박경훈 이운형(2015)	제주성 일대 옛길 실태 파악 및 보존 활용방안 제시
	김동윤(2015)	제주 원도심 재생의 방향, 제주형 인문도시모색
	박승희(2011)	골목문화의 가치와 대구 원도심 골목 스토리텔링의 의미와 실제
	이수연(2010)	도시브랜드 개념정리, 전주한옥마을의 현황 및 가치 분석, 개발방향성 제시
	박충환(2016)	대구근대골목투어는 장사스러운 볼거리 및 민간주도 시민문화운동이 단초가 된 사례
공간 스토리텔링 관련 연구	김영순(2010)	공간스토리텔링 이론 및 적용사례
	김영순·정미강(2008)	도시 공간에 장소성을 주여하고 공간 스토리텔링 모형 제안
	박희곤(2016)	공간스토리텔링의 정의 및 분석, 활용사례
	박여성(2015)	문화기호학과의 개념, 공간스토리텔링 과정 모형, 제주도의 공간 스토리텔링

위 선행연구 사례의 시사점은 원도심 옛길 걷기 스토리맵 제안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재생 개념 및 방향에 대해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는 원도심 길의 현황 및 역사문화·자연 자원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악한 자원 자료를 토대로 원도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옛길 탐방 사례 분석을 통해 의미와 코스의 특징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역사문화 자원 및 자연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원도심 옛길 걷기 사례를 조사하고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 분석의 틀로 분석할 것이다.

<표 6> 제주도 원도심 옛길 걷기코스

코스구분	탐방내용
1) 제주올레길 17, 18코스 2011.04.23개장	17코스 관덕정-간세라운지 18코스 간세라운지-오현단-제주성지-동문시장-산지천
2) 제주 성안유배길 2012.05.12.개장 3km	제주목 관아-이익유배지-김윤식 유배지-최익현 유배지-송시열 유배지-산지천-김진구, 김춘택 유배지-서주보 유배지-이세직 유배지-김정 유배지-오현단-정병조 유배지-광해군 유배지-이승훈 유배지-제주목관아
3) 은혜의 첫 길(제주 기독교순례길) 2017.11.14.개장 8km	제주성내교회-관덕정-제주영락교회 첫 예배터-이기풍 목사 기착지(산지포구)-한국전쟁 피난민 교회-제주제일성결교회 터-제주중앙감리교회 터-제주동부교회 터-제주노회 터-제주동도교회-제주 첫 유치원 중앙유치원(제주동부교회)-배형규 목사 순교기념비(제주영락교회)-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사라봉
4) 신축화해길 (제주 천주교순례길) 2017.10.22. 개장 1.8km	황사평성지-화북성당-화북포구-곤을동별도천-별도봉-김만덕묘-제주성 동문터(산지천)-관덕정-신성여학교터(향사당)-중앙성당
5) 탐라 옛골목길	제주성지-남문터-한깃골-칠성대(제일도)-박씨초가-향사당-제주소학교-조일구락부(구, 현대극장)-이앗골-검정목골-동문시장-동문백화점-고씨가옥-제주기상청(제주읍성흔적)-동문터-동자복
6) 원도심 탐험길	산지광장-탐라문화광장-칠성로-관덕정-성내교회-현대극장-향사당-박씨초가-제주성곽-오현단-동문시장-옛 동양극장

<표 6>의 제주도 원도심 옛길에 운영되고 있는 걷기 코스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주올레길

제주올레길은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옛길을 연계하여 자원화한 것이다.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영감을 받아 조성한 제주의 올레길은 2007년 성산읍 시흥초-광치기 해변을 1코스로 시작으로 현재 제주도에 26개 코스 425km의 올레길 코스를 만들었다. 26개 코스 중 제주시 원도심을 통과하는 코스는 관덕정을 지나 제주시 중앙로 간세라운지에서 끝나는 17코스과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오현단, 제주성지를 거쳐 동문시장을 지나 산지



<그림 4> 제주올레길 표시

천으로 나가는 18코스로, 특징을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성은 하면 기존의 제주올레길 코스는 제주의 천혜의 자연 자산과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코스이며, 제주시 원도심을 지나는 코스는 자연에서 벗어나 복잡한 시내로 접어들어 제주 사람들의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고, 현재 살아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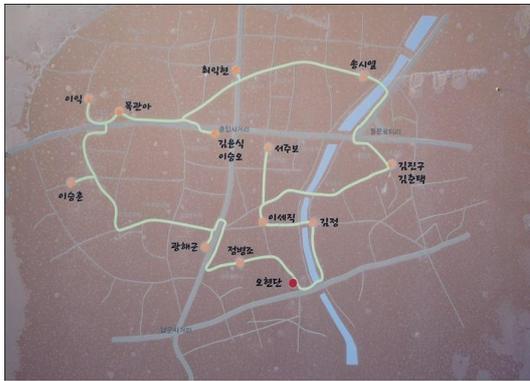
모습을 보고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역사 유적지 및 재래시장을 통과하는 코스다. 관덕정-오현단-제주성지-동문로터리-산지천을 따라 동쪽으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떠나게 된다.

둘째, 스토리 부여는 행정의 중심지였던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 교육의 중심지였던 오현단과 제주성지를 걸으며 제주사람들의 과거의 역사문화를 되짚어보는 과거로의 여행이라면, 동문시장에서는 현재 제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주해상관문의 중심지였던 산지포구를 지나게 되는 구성으로 스토리 보다 지리적 편리성이 고려되었다.

셋째, 공간 구성은 제주의 원도심 속 역사 유적지와 재래시장을 간세라운지와 연결한 코스로, 원도심 중심에서 끝내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하였으며, 올레길 안내 리본을 따라 걸으며 코스 내에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정보를 적절히 배치하여 기획 되었다.

2) 제주성안유배길

제주유배길은 조선시대에 제주에 유배 왔던 유배인들의 동선을 따라 걷도록 만든 길을 말한다. 제주유배길 조성은,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자와 지식인들이 제주로 유배되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유배인들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나아가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유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유배길 코스는, 1차적으로는 추사 김정희 발자취를 따라 걷는 추사유배길 2차로 광해군, 송시열, 김춘택 등 유배인들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제주성안유배길 3차로 조선 말기 지식인이자 유럽들의 자존심이었던 면암 최익현의 유배 시절을 찾아 걷는 면암유배



<그림 5> 제주유배길

길 등이 조성되었다. 그 중 원도심을 걷는 제주성안유배길의 특징을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성은 유배인들이 제주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들러서 제주목사에게 도착을 알렸던 제주목 관아에서 출발해서 과거 제주성 사람들의 식수원이었던 산지천을 거쳐 현재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

과 먹거리 등이 있는 곳인 동문시장을 지나 오현단과 광해군 유배지 표석이 있는 중앙로를 거쳐 제주목 관아로 돌아오는 코스로 유배인들의 유적지를 제주 원도심 옛길과 연계하였다.

둘째, 스토리 부여는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조선의 왕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광해군, 대학자 송시열, 제주풍토록을 남긴 김정 등 유배인들의 이야기를 따라 걸으며 유배인들의 운명적인 삶의 이야기를 만나며 그들이 겪었던 절망 그리고 인내의 자세를 통해 자기 성찰 의 시간 및 과거 제주사람들의 삶과 조선시대의 역사문화를 접하게 된다.

셋째, 공간 구성은 성안유배길은 제주 역사문화의 중심지였던 제주목 관아를 중심으로 유배인들의 유적지를 따라 걷는 코스로, 제주목 관아를 출발하여 복원된 산지천 광장을 거쳐, 도민과 관광객들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동문시장 주

변의 유배인들의 유적지를 따라 오현단을 돌아 다시 출발지점으로 오는 코스로 총 거리는 3km이고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빠르게 변해가는 도심 도로 여건상 초행길에는 안내 없이 찾아 걷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제주기독교순례길(은혜의 첫 길)

은혜의 첫 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CBS가 2011부터 추진한 제주기독교 순례길 마지막 코스로, 제주성내교회에서 출발하여 초기 제주 기독교 선교 활동의 현장인 관덕정,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도착했던 산지포구를 지나 동문시장을 거쳐 사라봉까지 8km 구간을 걸으며 제주기독교 초기 역사의 현장을 찾아 걷는 길이다. 이는 이기풍 목사를 기리고 제주 기독교 초기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그림 6> 제주기독교순례길 표시

마련된 길이다. 은혜의 첫 길의 특징을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성은 이기풍 목사가 처음 도착한 산지포구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제주성내교회는 당시 경제와 행정,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 상업 활동의 중심지였던 동문시장,

제주와 육지 문물이 교역했던 산지포구는 이기풍 목사가 처음 도착한 곳으로, 기독교 선교 역사에 의미가 큰 장소이다. 사라봉은 영주 10경 중 하나인 사봉낙조로 유명할 정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며, 그 자락에 제주도민들이 건립한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둘째, 스토리 부여는 이기풍 목사가 건축한 도내 첫 예배당인 제주성내교회에서 출발하여 행정의 중심지였던 관덕정을 지나 제주 제주동부교회 첫 터였던 동문시장, 이기풍 목사가 처음 제주에 도착했던 산지포구, 이기풍 목사를 도와 신앙과 교육으로 민중계몽에 앞장섰고, 독립자금 모금을 주도하다 순국하여 사라봉에 기념비가 세워진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까지 기독교역 역사와 제주사람들의 삶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코스다.

셋째, 공간 구성은 제주성내교회는 과거 교육, 정치, 행정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역사문화 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장소 중 하나이다. 원도심 핵심지역이었던 관덕정을 지나 현재 가장 활성화된 재래시장인 동문시장, 과거 모든 문물이 드나들던 산지 포구를 지나 사라봉으로 나가게 되는 코스로 구성되었는데, 도심 속에서는 표식을 따라 걷는데 방해 요인들이 많아서 초행길에 안내자 없이 찾아 걷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4) 제주천주교순례길(신축화해길)

신축화해길은 제주 천주교 순례길 중에 제주시 원도심을 지나는 코스로, 1901년 신축교안¹⁴⁾ 때 희생된 신자들과 교회를 입었던 도민들과 상생을 추구하면서 사랑과 평화의 의미로 ‘신축화해길’이라 명명하였다. 신축교안 때 희생된 신자들이 묻혀있는 황사평성지에서 출발하여 화북포구, 곤을동, 별도천과 관덕정을 거쳐 중앙성당에 이르는 10.8km거리의 길이다.



<그림 7> 제주천주교순례길 표시

천주교 순례길은 천주교 순례길 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한 제주지역 도보 탐방길로, 자연경관과 더불어 종교적 명상으로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6개 코스의 길이 운영되고 있다. 천주교 순례길 사이트(<http://peacejeju.net/>)에서

코스 지도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순례길의 의미와 상징, 교통편, 미사시간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축화해길(고통의 길)의 특징을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성은 신축교안 당시 희생된 무연고자들이 묻혀있는 황사평 성지를 출발하여, 그 희생자들이 황사평으로 묻히기 전에 매장되었던 별도천, 학살의 장소였던

14) 위키백과, 1901년 제주도민들과 천주교도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사건으로, 일명 신축교난·이재수(李在守)의 난·제주민란·제주교란(濟州教亂)이라고도 함.

관덕정으로 가는 과정에, 조선시대 가뭄으로 굶주리는 제주도민을 구휼한 김만덕 묘
탑과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탑이 있는 모충사를 코스에 포함 시켜서 천주교의 역사
뿐만 아니라 과거 동시대 제주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도록 장소를 연계였다.

둘째, 스토리 부여는 신축교안 당시 민군의 세력이 주둔하였던 장소인 황사평이,
당시 희생된 천주교 신자들의 묘지로 조성되고 무명 순교교자들의 성지로 성역화
되었다. 신유박해 당시 천주교인으로 제주에 유배 온 정난주 마리아가 도착했던 곳
화북포구는 제주 천주교의 중요한 장소이다. 4·3 당시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신
축교안 당시 관덕정에서 희생된 천주교인들이 황사평에 묻히기 전에 매장되었던 별
도천, 조선시대 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던 제주목 관아, 제주도 최최의 성당인 제주중
양성당에서 마무리 하는 코스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야기가 이어진다.

셋째, 공간 구성은 황사평성지에서 출발하여 화북공업단지를 통과하는 코스는 대
형 차량 및 작업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로 도보체험 코스로는 안전이 우려되는 코
스이다. 화북포구는 화북진성 등 제주의 역사적 이야기와 가 많은 장소이며 바다를
끼고 곤을동을 지나는 길은 풍광이 아름답고 역사문화 유적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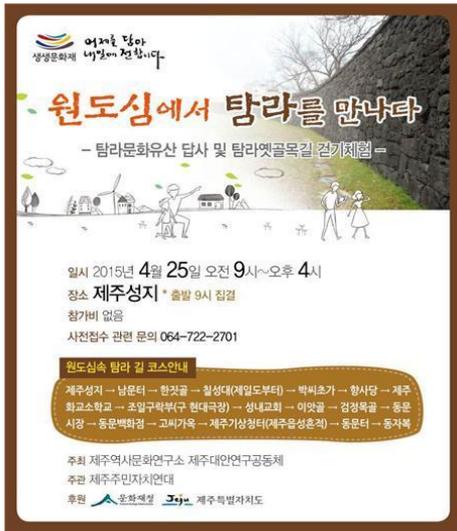
5) 탐라옛골목길

탐라옛골목길 걷기는 ‘원도심에서 탐라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제주역사문화연구
소 주최, 2015년 4월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해 온 코스 중 4월 24
일 걷기 코스이다. 이 행사는 원도심의 주요 문화요소를 3개의 테마로 분류하여 탐
방하며,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제주의 역사문화를 배우기 위해 목적으로 추진
되었다. 15)

탐라옛골목길 걷기 체험의 특징을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성은 원도심 속 탐라를 주제로 탐라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
주성지를 출발하여 과거 남문터, 옛길인 한짓골, 박씨초가, 성내교회를 돌아서 다시
옛길인 이앗골과 검정목골을 걸어서 동문시장을 지나 고씨가옥과 동자복에 이르는
코스로 옛길과 근대 유적지까지 고루 포함되어 있다.

15) 제주역사문화연구소 카페 참고 <http://cafe.naver.com/jejutour77/448>



<그림 8> 탐라옛골목길 걷기 체험 안내

둘째, 스토리 부여는 원도심 속 역사문화자원을 직접 살펴보고 탐라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제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한 코스로, 역사문화자원과 옛길을 연계하였다.

셋째, 공간 구성은 제주성지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출발하여 동쪽까지 범위를 설정했다. 제주성지, 박씨초가, 향사당 등 잘 알려진 장소 외에는 안내자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6) 원도심 탐험길

원도심 탐험길은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가 2013년 2월부터 시작된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걷기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코스는 다르게 구성되었다. 그 중 2014년 8월에 추진된 기억의 현장에서 미래를 보다 코스는 산지광장을 출발해서 칠성로를 지나 관덕정을 돌아 오현단을 거쳐 옛 동양극장으로 마무리 하는 코스다.



<그림 9> 원도심 탐험길 행사 사진

코스의 특징을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성은 복원된 산지광장을 출발해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어깨를 포개어 걷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인파가 북적였던 칠성로, 제주의 정치, 경제의 핵심이었던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 도심 속에 현존하

는 300여년 된 초가인 박씨초가에 닿는다. 한깃골로 걸어서 조선시대 오현을 기리는 오현단과 탐라시대 유적인 제주성곽, 현재의 제주를 만나는 동문시장과 그 옆에 근대건축물인 옛 동양극장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 이후 공동화현상을 앓아온 원도심의 가치를 공론화를 위한 코스이다.

둘째, 스토리 부여는 제주시라는 도시 공간의 역사문화지리적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옛길을 따라가면서 건축물과 공간이 어떻게 도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 의미를 읽어내 보도록¹⁶⁾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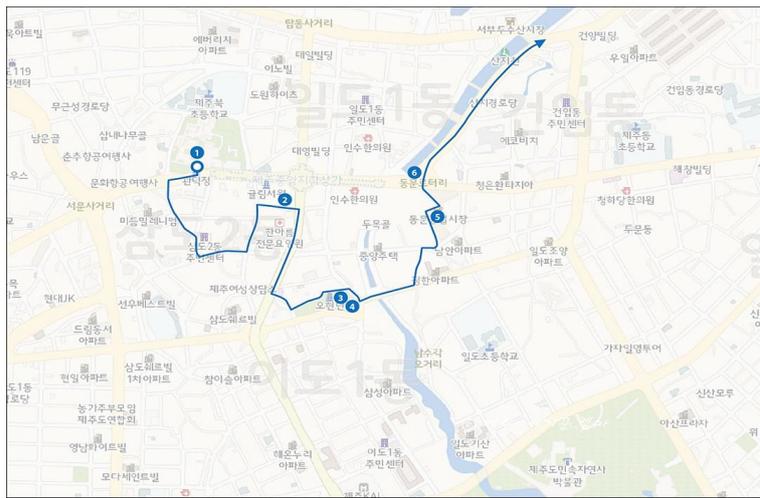
셋째, 공간 구성은 산지광장에서 출발하여 한 때 가장 변화했던 칠성로, 도시개발의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300여 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박씨초가, 탐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제주성안을 지켜주던 제주성터, 근대문화유산인 옛 동양극장으로 구성, 평범한 골목, 일상적인 풍경이 형성되기까지 겪어온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안내자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위의 옛길 걷기 사례들을 아래 <표 7>과 같이 분석결과 제주시 원도심 옛길 위에 의미와 목적을 달리하는 새로운 길들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길들은 각각의 의미가 확연히 달라서 어느 하나의 코스로 제주시 원도심 옛길 코스로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걷기코스 운영은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을 지정해서 단체에서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방식으로 단발적 행사에 제한되어 있으며, 일부 코스는 해설사 또는 안내자 없이 개인이 찾아 걷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구조이다. 대부분의 길들이 유적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의 유적은 이미 사라지고 인근에 세워진 표석으로 대체하는 사례의 비중이 크고, 제주의 자연 환경은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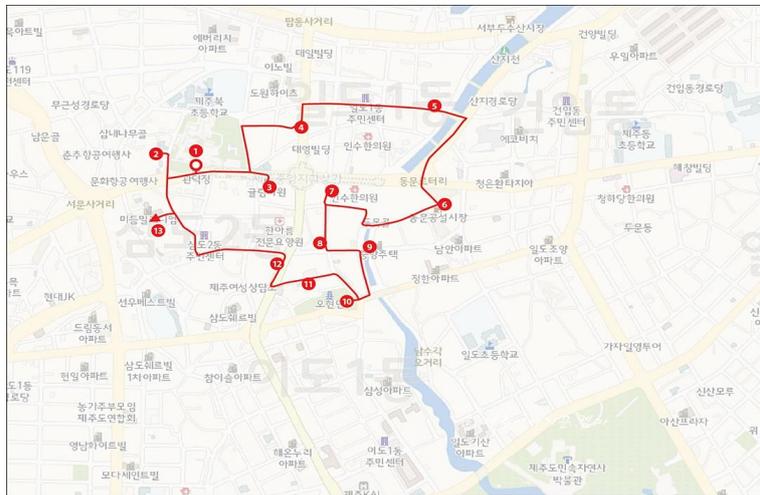
16)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홈페이지 참고 <http://jicea.org/>

<표 7> 제주시 원도심 옛길 걷기 코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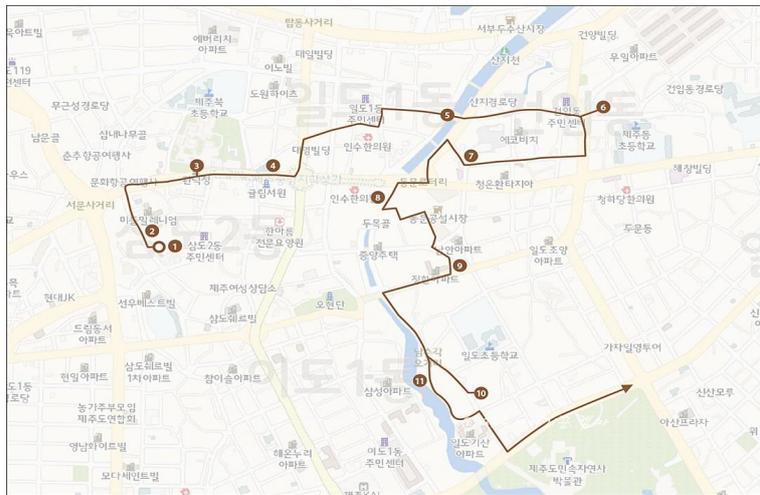
	장소성	이야기	공간구성
1) 제주올레길	도보여행 코스에 유적지와 재래시장을 연계	제주사람들의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 삶의 이야기	코스연결이 잘 되도록 리본 표시가 체계화 됨
2) 제주성안유배길	유배인들의 유적지 위주로 구성	조선시대 유배인들과 제주사람들의 이야기	안내 표석이 세워진 곳은 찾아가기 수월하나 전체를 이어주는 장치 없다
3) 은혜의 첫 길 (제주 기독교순례길)	이기풍목사와 제주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연계	이기풍목사와 제주기독교 초기 역사와 제주사람들의 이야기	제주성내교회를 출발하여 사라봉까지 따라 걷도록 표식과 리본을 설치됨
4) 신축화해길 (제주 천주교순례길)	황사평을 출발하여 원도심 중앙성당까지, 천주교 유적 외에도 연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신축교안의 이야기부터 4·3까지 역사이야기	황사평에서 출발해서 원도심으로 진입하는 코스로 표식과 리본이 설치되었음
5) 탐라옛골목길	탐라의 성곽인 제주성지에서 출발하여 옛길과 유적지를 연계	탐라시대부터 근대까지 원도심의 역사문화와 골목에 대한 이야기	역사문화유적지와 옛길을 개인적으로 찾아 걷는데 어려움이 있음
6) 원도심 탐험길	과거 변화했던 상가거리와, 유적지 등을 건축물을 위주로 연계	유적지 중 건축물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문화유적지와 옛길을 개인적으로 찾아 걷는데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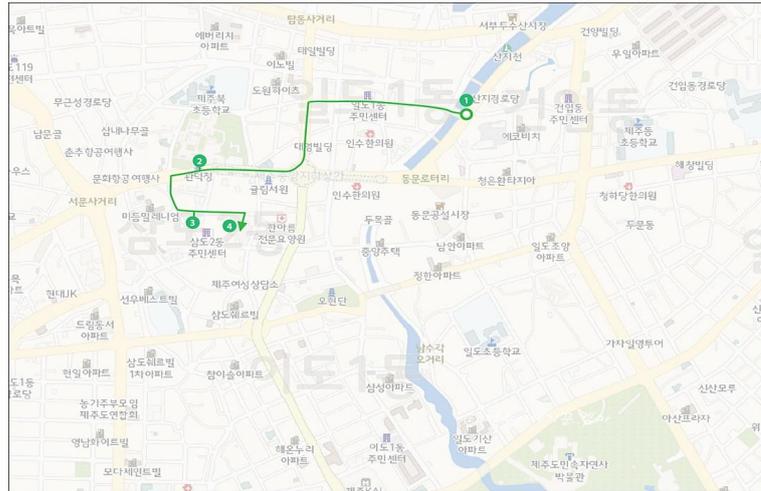
<그림 10> 제주올레길,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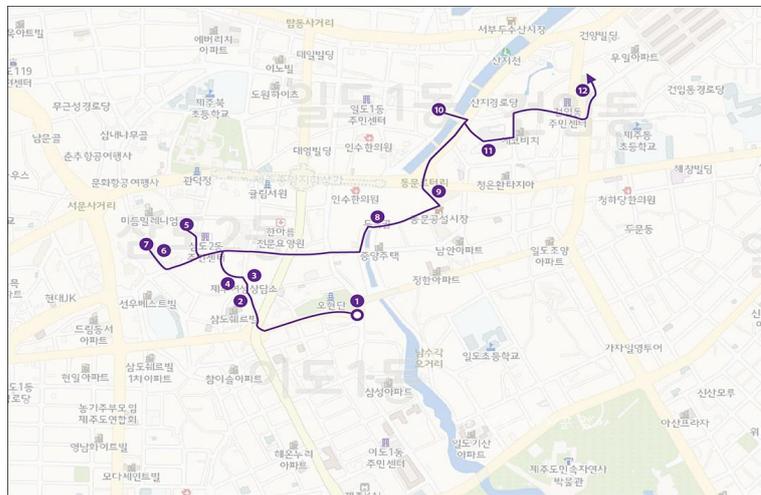
<그림 11> 제주성안유배길,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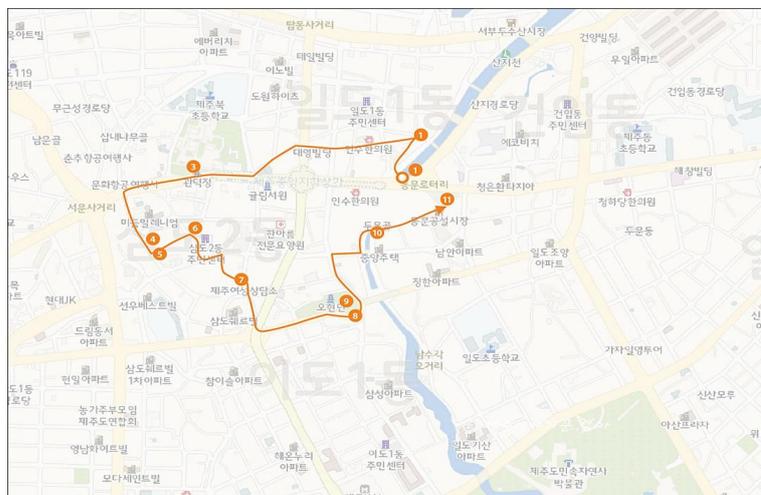
<그림 12> 제주기독교순례길,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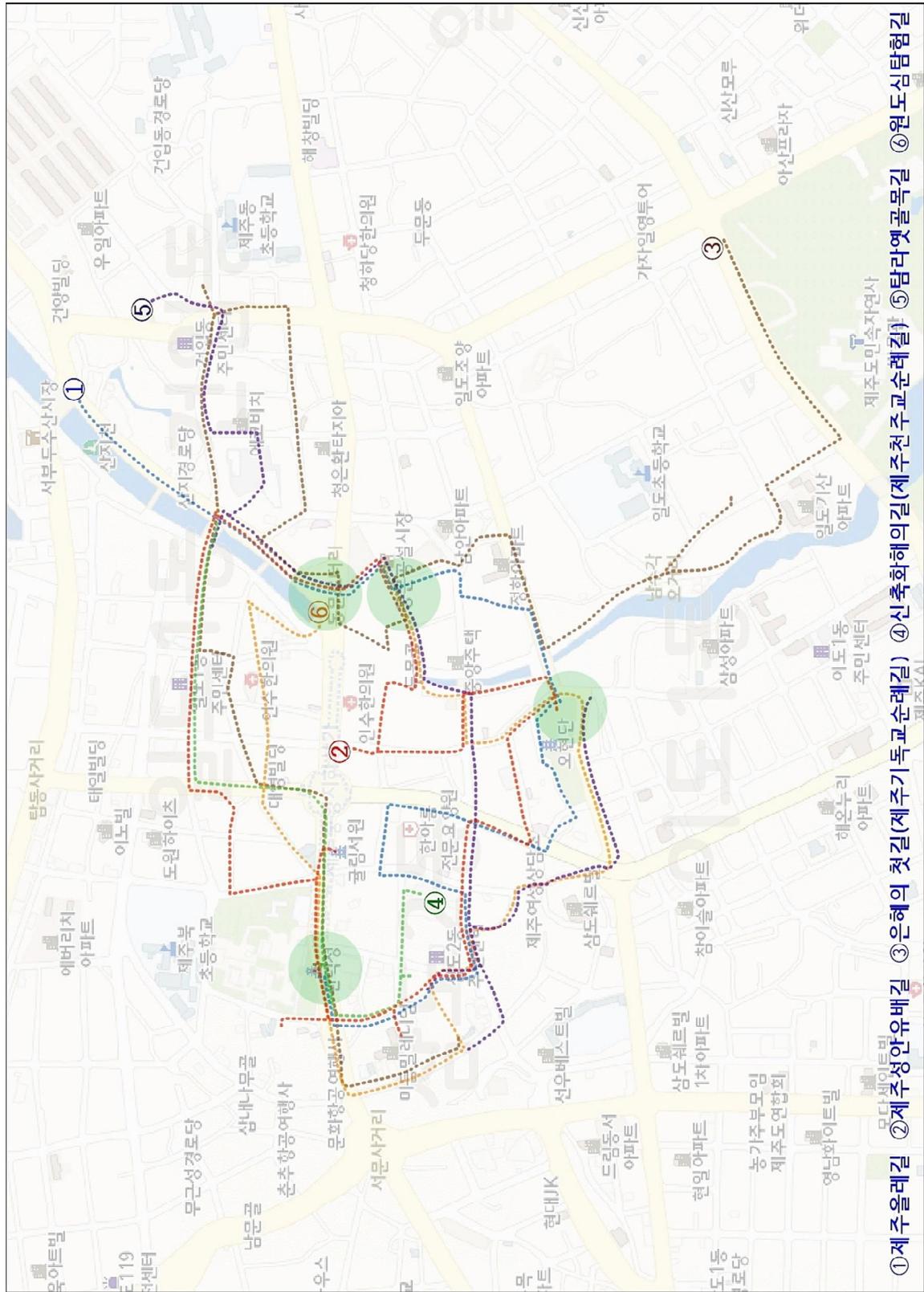
<그림 13> 제주천주교순례길,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활용



<그림 14> 탐라옛골목길,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활용



<그림 15> 윈도심탐험길,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활용



<그림 16> 원도심 옛길 걷기코스 종합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활용

기존의 걷기 코스들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 핵심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위의 지도<그림16>에 나타난 것처럼 가장 많이 중첩되는 부분은 산지천으로 6개의 코스 모두에 포함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관덕정, 동문시장으로 5개의 코스에 포함되고 있으며, 제주성지, 오현단은 4개의 코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스들 대부분이 유적지나 건축물 위주로 하고 있어 제주의 자연 자원의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걷기 코스를 분석하여 가장 많이 중첩되는 부분을 도출하고, 제주의 역사문화유적지를 자연적 요소와 연계시켜서 제주시 원도심 옛길 걷기 코스를 스토리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는 자연을 중심으로 그 공간에 깃든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공간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선인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 걷는 교육적인 의미를 포함하며, 걷기에 효율적인 동선으로 공간 구성 후 스토리맵으로 완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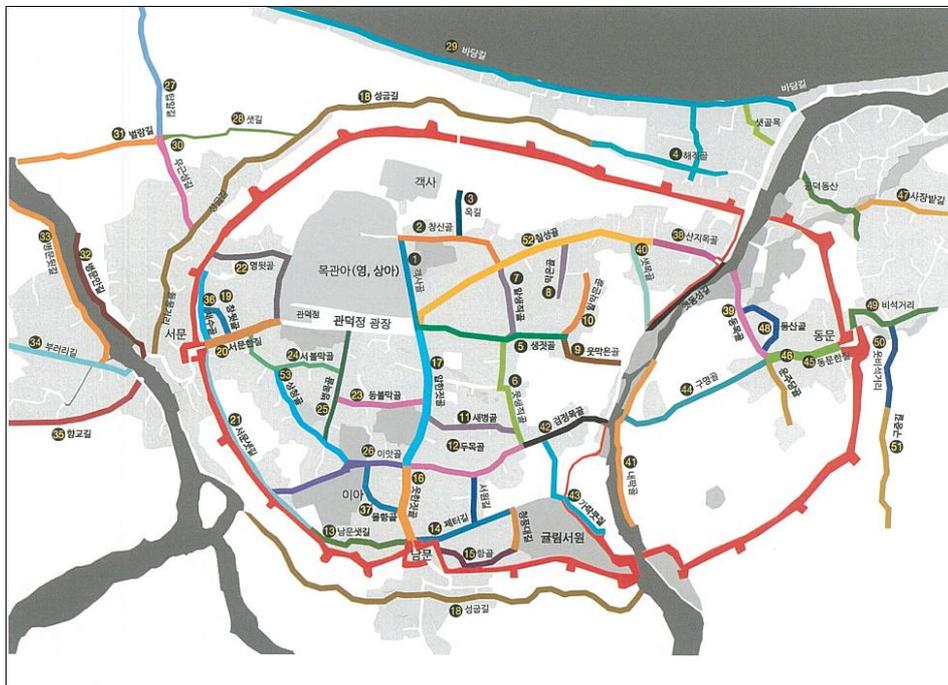
여건에 맞게 제주올레길이나 제주유배길, 제주순례길 등으로 확장하여 걸을 수도 있다.

Ⅲ. 원도심 옛길 공간 스토리텔링과 스토리맵 제안

1. 연구 대상지 내 옛길 현황 분석

1) 옛길

제주성지를 기준으로 제주시 원도심은 탐라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시간이 누적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제주성지를 기준으로 한 주변의 옛길을 정리한 연구 자료집인 『제주성 총서 사진·지도』의 옛길들을 살펴보면 제주성지 주변으로 내팍골과 가락곶길 사이로 산지천이 지나고 있다. 서쪽으로 큰길인 한짓골을 객사골까지 이어져 제주목 관아에 닿고 있는데 객사골은 타 지방에서 제주목으로 출장 온 관리들이 묵는 숙소 앞 까지 이어진 길을 말한다.



<그림 17> 제주성내 마을 이름과 옛길 이름

출처: 『제주성 총서 사진·지도』, 제주시 문화예술과 (2015)

길 동쪽의 불길이 관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붙여진 길 이름 동불막골, 서쪽의 불길이 관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불막골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옛길에는 당시의 길의 역할과 의미가 반영되고 있으며, 옛길의 이름이 대부분 골이나 길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지는 옛길 모흥골을 따라 제주성지와 오현단을 만나고, 한짓골과 동불막골을 지나 관덕정에 이르게 된다. 다시 관덕정 앞을 지나 동문로터리를 지나는 관덕로를 따라 산지천 광장을 지나 고씨가옥으로 향하게 된다. 관덕로는 일제강점기 때 새로 만들어진 신작로로 서문한길과 생짓골, 동문한길을 통과하는 길이다. 이 길이 나면서 제주도민들의 광장인 관덕정 광장이 잘려나가고 광장의 의미도 사라졌다.

강경희, 김태일, 박경훈, 이운형 (2015)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옛길 보존의 필요성을 제주성 일대 옛길 잔존여부 및 원상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54개의 옛길이 파악됐다. 54곳 중 전체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 5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곳(54%)이 옛길을 거의 그대로 원상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¹⁷⁾ 며 옛길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 문화재 현황

본 연구 대상지 내에 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제주도지정문화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관덕정이 보물 제322호, 삼성혈은 사적 제134호, 제주목 관아가 사적 제380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 등은 오랜 세월 제주민들과 함께 세월을 버텨낸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삼성혈은 탐라문화의 발상지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17) 강경희, 김태일, 박경훈, 이운형 (2015),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규명 및 보존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학센터, 제주학연구 23, 90~91쪽

<표 8> 연구 대상지 내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관심지점	명칭	시대	지정일	소재지
2	삼성혈	미상	1964년 6월 10일 사적 제134호	제주시 삼성로 22
10	관덕정	1448년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 322호	제주시 관덕로 19
11	제주목관아	조선	1993년 3월 31일 사적 제380호	제주시 관덕로 25

제주도지정문화재로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도민속자연사박물관) 내에 민속자료 제6호인 상여(제구)가 있고, 박물관 입구 동쪽과 서쪽에는 민속자료 제2-3호, 제2-4호인 돌하르방이 위치하고 있다.

삼성혈 전시관 입구 앞에는 기념물 제65호인 삼사석비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관에는 유형문화재 제12호인 급제선생안, 제15호인 홍화각기, 제32호인 홍화각이 전시되고 있다. 홍화각과 홍화각기는 조선시대 제주출신 문신인 고득종의 글씨로 조선 초기 서체 연구에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삼성혈 입구 동쪽과 서쪽에는 민속자료인 돌하르방 제2-7호, 제2-8호가, 건시문 동쪽과 서쪽에는 제2-9호, 제2-10호가 각각 서 있다.

제주성지는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호로, 탐라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오현단은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호로, 유형문화재 제6호 향사당, 민속자료 제2-1호, 제2-2호인 돌하르방은 관덕정 앞 남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5호, 제2-6호는 관덕정 후문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다. 과거 제주국제공항 입구에 있었던 민속자료 제2-19호, 제2-20호인 돌하르방이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설, 2011년 제주목 관아 북과원을 지키고 있다. 18세기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진 오리지널 돌하르방 47기 중 12기가 연구 대상지 내에 있다. 돌하르방의 역할은 타 지역의 장승과 비슷한 역할로, 수호신적, 경계금표적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승은 민에서 세웠지만 돌하르방은 관에서 제작해서 세웠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 8>, <표 9>의 문화재들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선인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 걸으며, 그 안에 남아 있는 문화재들을 통해 당시의 문화를 유추해볼 수 있다.

<표 9> 연구 대상지 내 제주도지정문화재 현황

관심 지점	명 칭	시대	지 정 일	소 재 지
1	상여(제구)	1763년	1991년 6월 4일 도민속자료 제6호	제주시 삼성로 40 도민속자연사박물관
1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3	제주시 삼성로 40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입구 서쪽
1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4	제주시 삼성로 40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입구 동쪽
2	급제선생안	1720년	1991년 6월 4일 도유형문화재 제12호	제주시 삼성로 22 전시관
2	홍화각기	1437년	1991년 6월 4일 도유형문화재 제15호	제주시 삼성로 22 전시관
2	홍화각현판	1437년	2013년 1월 15일 도유형문화재 제32호	제주시 삼성로 22 전시관
2	삼사석비	1735년	2011년 5월 6일 도기념물 제65호	제주시 삼성로 22 전시관 앞
2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7	제주시 삼성로 22 삼성혈 입구 동쪽
2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8	제주시 삼성로 22 삼성혈 입구 서쪽
2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9	제주시 삼성로 22 삼성혈 입구 건시문 동쪽
2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10	제주시 삼성로 22 삼성혈 입구 건시문 서쪽
4	제주성지	1411년 이전	1971년 8월 26일 도기념물 제3호	제주시 오현길 61
5	오현단	조선	1971년 8월 26일 도기념물 제1호	제주시 오현길 61
9	향사당	조선	1975년 3월 12일 도유형문화재 제6호	제주시관덕로 6길10
10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1호	제주시 관덕로 19 관덕정 앞 남쪽
10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2호	제주시 관덕로 19 관덕정 앞 북쪽
10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5호	제주시 관덕로 19 관덕정 후문 남쪽
10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6호	제주시 관덕로 19 관덕정 후문 북쪽
11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19호	제주시 관덕로 25 목관아 북과원
11	돌하르방	미상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20호	제주시 관덕로 25 목관아 북과원

2. 장소성 분석

“장소가 만들어지려면 사람이 모여야 하고, 모이기 위해서 사람이 모일 목적지가 될 만한 가게나 랜드마크 건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머무를 식당이나 카페가 필요한 것이다. 걷고 싶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벤트 밀도가 높은 거리여야 한다.”¹⁸⁾

제주시 원도심은 마천루가 없고 작은 건물들과 소규모 상가들이 모여 있어서 이벤트 밀도가 높은 거리 조성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양성을 갖추는 등 변화를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거리에 활기를 찾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원도심 옛길을 언제든 걸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스토리맵 제안을 위해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의 틀을 활용하여 장소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공간의 역사성이다. 둘째, 공간이 품고 있는 콘텐츠이다. 셋째, 공간 주변의 경관과 특징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도민속자연사박물관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1984년도에 개관되었다. 제주도의 형성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연 환경, 사람들의 삶, 통과 의례, 의식주 및 제주의 자연과 인문 환경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민속유물과 자연



<그림 18>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정경

사적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다. 순수 박물관으로써의 교육적 역할과 관광지으로써의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 박물관 내부의 콘텐츠는 물론 박물관에서 밖으로 향했을 때 빌딩들 사이로 한라산을 관찰할 수 있으며 박물관 주변으로는 산지천까지 흐르는 하천 주변으로 거목들이 어우러져 도심 속 숲을 조성하고 있다. 박물관 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도민속

18) 유현준 (2015),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280~291쪽

자료인 돌하르방들은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 다는 속설 때문인지 코 주변이 마모된 상태이다.

2) 삼성혈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 탐라시대의 시작이자 제주문화의 전설적 발상지이다. 탐라개국신화 속 탐라국 시조인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솟아난 세 구멍이 있는 곳이다.

삼을나(三乙那)의 탐라개벽(耽羅開闢)을 기려 152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2월 10일에는 건시대제(乾始大祭) 지내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조선시대에 뛰어난 선비를 두어 면학 하던 재사(齋舍)였던 송보당이 1849년 건립 후 1974년에 이전, 자리하고 있어, 한 때 학사역할을 했던 곳으로써 의미도 있는 곳이다.

전시실에는 도지정문화재인 홍화각, 고문서, 현판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제주 개벽신화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있다.



<그림 19> 2017년 건시대제

수백 년 된 울창한 나무들이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장소이다. 수고가 2m 이상되는 수목이 천여그루에 달하고, 수종은 50여 종이며, 500여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곰솔, 팽나무, 구실잣밤나무, 녹나무 등이 주요수종으로 관련 학자들도 연구를 위해 많이 찾는다.

일제강점기 때 삼성혈 내 거목들이 진지 구축용으로 잘려 나갈 위기를 맞이했는데, 삼성사 재단의 고인도(1896~1962) 이사장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일화가 있다. 일본 사령관에게 불려간 고인도 이사장은 “나무를 내놓고 자손들에게 맞아 죽으나 내놓지 않고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이니 승낙할 수 없다.”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복이 완전히 젖어 있을 정도 두려웠었다는 후일담이 전해진다.¹⁹⁾ 그 덕에

19) 고희범 (2013), 『이것이 제주다』, 105쪽

지금까지 제주시 도심 속 울창한 숲을 누리고 있다. 도심 속 고토로써 칼호텔 등의 높은 건물에서 보는 경관은 또 하나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3) 광양당 터

삼성혈 정문 앞 인근에 위치한 광양당은 과거 삼성혈의 삼신인을 모셨던 당이다. 1653년에 만들어진 이원진의 『탐라지』를 보면 주성 남쪽 3리에 한라호국신사인 광양당이 있다고 기록되었다. 광양당은 제주에서 가장 큰 신당이었다. 이 당은 유교 제례가 일반화된 조선조 이전에 탐라국 나라 굿을 진행 했던 탐라국 국당의 터로 알려져 있다.²⁰⁾ 현재는 이도1동 새마을운동중앙회제주지회 건물 앞에 표석과 조형물이 있다. 광양당 터 맞은편에 위치한 이도1동주민센터 담장에는 탐라개국신화와 오현단 등 지역의 신화 및 역사적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시비를 설치하였다. 삼성혈 사거리부터 제주성지까지의 거리는 ‘삼성혈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어, 2013년부터 매



<그림 20> 광양당 터

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에 ‘문화의 거리 축제’가 열리고 있다. 축제는 지역민들의 준비로 주민들과 도내 외 관광객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삼성혈문화의 거리는 오래된 건축물들과 표구점 거리를 둘러 볼 수 있으며 내리막길이라 원도심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4) 제주성지

제주성지는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3호로 삼국시대 탐라국 수부(首府)의 성곽으로 제주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축성되어, 제주시내의 중심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조선시대에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남사록(南槎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후 1599년(선조32년) 제주에

20) 문무병, ‘하늘에서 내려온 자청비 맞이하는 나라굿’ 제주의 소리 (2013.6.11.)

부임한 성윤문 목사가 대대적으로 제주성의 개축공사를 하였다. 성 저변을 5척이나 확장하고 높이를 13척으로 높였으며 동·서·남문을 중수하고 격대 27개 중 포루에는 기와를 덮고 타첨(垛堞) 404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성의 둘레는 6,120척이고 높이는 13척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21)

일제강점기에 산지항을 개발하면서 성벽을 허물어 바다에 매립하는 골재로 사용



<그림 21> 제주성지

하면서 제주성 일부분만 남아 있던 것을 복원했다. 선조들의 축성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제주성지와 나란히 복원된 제이각 아래로는 우거진 숲 사이로 동문시장으로 이어진 길이 있으며, 도심 속에서 검은 현무암 석성과 안쪽 오현단에 위치한 거목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조선시대로 타임머신 여행을 온 듯하다.

5) 오현단

제주성지 안쪽에 위치한 오현단은 조선시대 제주에 방언사로 부임하거나 유배되어 와서 제주의 교육, 학문 등 지방 발전에 공헌한 다섯 성현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제단이다. 1578년 김정을 기려 세운 충암묘의 효시인 굴림서원은, 이후 정운·김상헌·송인수를 봉향 하였다. 1682년 숙종이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 지정하여 ‘굴림’이라



<그림 22> 굴림서원

는 현판을 하사했다. 1695년에 송시혈을 추가로 봉향하여 5현을 모시고 유림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했다. 이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71년 굴림서원은 허물어지고 제사도 중단되자 제주 유생들이 5개의 조두석을 세우고 제를 올리면서 오늘날의 오현단이 됐다. 2004년 굴림서원과 유생들을 교육시켰던 강당인 장수당과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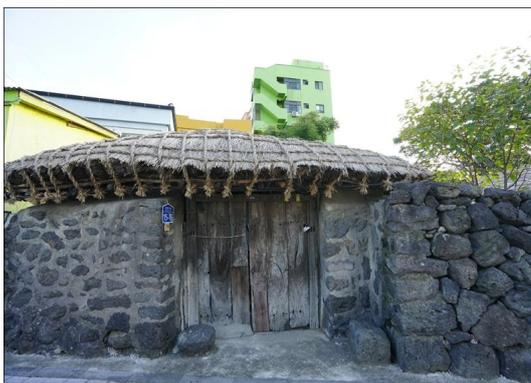
21) 제주연구원 (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옛 제주시’, 39쪽

현사, 영혜사를 복원해 유학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현재 오현의 자취로는 송시열의 글씨로 판관 홍경섭이 바위에 새긴 ‘증주병립’ 마애명 등이 남아있다.

경내에는 곶술, 팽나무 등 아름답리 거목들이 어우러져 사계절 산책하기 좋은 도심 속 명소이며, 오현단 맞은편에 가락콧물 표석이 남아 있다. 어른들이 “가락콧물이 마르면 인물이 안 난다”고 했을 정도 성안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물이었다. 가락콧물 부근에 남수구가 있었고 그 위에 남수각 정자가 있어서 남수각물이라도 불렀다. 가락콧물 하류에 위치한 산짓물은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물을 길어 가기도 하고 빨래를 하기도 하였는데, 밀물 때에는 바닷물이 덮여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밀물 때가되면 가락콧물은 물 길는 여성들로 붐볐다. 장마철이면 내를 따라 물이 밀려와서 비가 개이면 빨래터로 나왔다. 이렇게 가락콧물이 터질 때면 사람들은 “시집 서귀포에 갔던 물이 친정으로 돌아온다.²²⁾”고 비유할 정도로 아낙들에게 가락콧물과 빨래터는 중요했다. 지붕 시설이 되어 있어서 비 오는 날도 젖지 않고 빨래를 할 수 있었다.²³⁾ 1970년대초까지는 맑은 물이 흘렀지만 그 후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흐르는 물은 볼 수 없고 지금도 수량이 많은 계절에는 표석 주변 바닥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6) 박씨초가

원도심의 관문, 과거 제주성의 남북을 관통하는 가장 긴 길, 길이 크다 해서 한깃



골이다. 지금은 편도 1차선의 차로이지만 과거에는 시외버스가 다니던 큰 길이었다. 그 거리에 제주시 원도심 속 유일한 초가인 ‘박판사네’ 집이 남아있다. 박판사는 초대 제주읍장을 지낸 故 박명효씨의 큰아들 故 박창택 판사를 말한다. 현재는 박명효씨의 둘째아들인

<그림 23> 박씨초가

22) 제주문화예술재단 (2017), 『기억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오래된 미래, 그 안의 삶’ 371쪽

23) 제주연구원 (2008), 앞의 책, 37쪽

故 박창우씨의 며느리인 안순생(95세) 할머니가 초가집을 지키고 있다. 현재도 초가 우영밭(텃밭)에는 유실수들과 채소 등을 가꾸고 있는 모습이 과거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7대, 300여 년이란 긴 시간 세월을 견디고 원형을 보존해 온 초가의 대문 앞 두 개의 노뚝돌, 땅은 집안사람들의 쉼터이자 이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 앉았다 가는 쉼터, 배려의 공간이다²⁴⁾.

7) 제주중앙성당

제주교구 최초 본당인 중앙성당 1899년 4월 22일 뮈텔(G.Mutel)주교가 페네(C. Peynet) 신부와 김원영 신부를 제주에 파견하여 포교를 시작됐다²⁵⁾.

1930년 최덕홍 신부가 현 중앙성당 자리에 고딕식 붉은 벽돌 성당을 지었다. 두



<그림 24> 제주중앙성당

번째 성당으로, 당시 제주도에서 유일한 서양식 고딕 건물로, 뾰족한 성당은 제주의 명물 중 하나였으며, 성당의 삼종을 알리는 종소리가 제주 시민들의 시계역할까지 했었다.

현재 성당은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1997년에 완공한 것으로, 1930년에 지은 옛 고딕성당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것이다. 기존의 성당들 건립에는 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의 성당 건물은 본당과 신자들 그리고 지역의 타 종교인들까지 성금으로 완성된 성당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삼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

려 퍼지는데, 이 종은 옛 고딕 성당을 복원하면서 종탑의 종 다시 설치한 것이다. 1930년 뾰족 성당에서부터 시작된 종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종소리는 아득한 추억의 소리이다. 성당의 우뚝 솟은 3개의 종탑은 삼위일체라는 종교적 의미

24) 제주문화예술재단 (2017), 앞의 책, 340쪽

25) 제주연구원 (2011), 「제주여성사Ⅱ」, 기독교, 489쪽

와 함께 제주의 특징인 삼다와 삼무²⁶⁾를 상징화 한 것이기도 한다. 성당 마당에 있는 거목들은 신자들 외에도 이웃 주민들에게도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8) 소라다방

소라다방은 젊은이와 지식인 및 예술인들이 많이 찾던 사랑방이었다. 당시엔 흔하지 않았던 클래식음악 전문다방으로 DJ가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고, 문화계 인사들이 많이 드나들던 장소이다. 故 고종휴 선생 등 음악 애호가들이 등사판으로 새긴 악보와 해설을 담은 소중한 자료를 직접 만들어 나눠주고, 함께 음악 감상을 하기도 했던 곳이다. 3층에 위치한 사인자 서점과 인근에 대동서점은 1980년 당시 사회과학서적을 전문적으로 팔았던 곳이라 대학생들이 많이 찾았다. 한국전쟁 당시 굶주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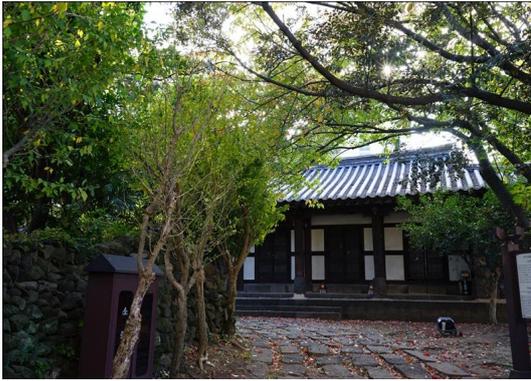
<그림 25> 옛 소라다방 건물

예술인들이 제주로 피난을 왔던 시절, 소라다방은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다. 육지서 온 예술인들이 여비가 떨어지면 전시회를 열어 여비를 마련했던 예술인들의 고향 같은 장소였다. 당시에는 다방에서 제주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논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2층은 사진 스튜디오 ‘이디아트’ 라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서점이었던 3층은 상담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제주중앙성당과 마주하고 있는 소라다방 주변은 과거 호황기를 기억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남아 있다.

9) 향사당

향사당은 도심 속에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6호다. 조선시대의 정자로, 민심을 살피던 기관이기도 했다. 수령을 보좌하는 자문기관인 유향소 기능이었다가 조선 초에는 좌수의 처소로 이용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신성여학교로 이용되었다. 당시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 5명 중 최정숙, 고수선, 강평국 등은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인물들이

26) 三多(여자, 바람, 돌)와 三無(거지, 도둑, 대문)



<그림 26> 향사당

현재는 관리를 위해 문이 잠겨있어 문틈 사이로 향사당을 볼 수 있다. 주변으로는 오래된 건물과 새로 생긴 주택단지들이 자리하고 있는 골목으로, 향사당 담장 너머로 볼 수 있는 커다란 감귤 나무와 거목은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이끈다.

10) 관덕정

관덕정은 1448년, 군사를 훈련할 목적으로 건축한 조선시대 과거시험장으로, 활쏘기 시험을 치르거나 군사 검열하는 곳, 진상할 군마를 점검하던 곳이었다. 제주에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된 조선 전기 건물로 보물 제322호다. 내부에는 ‘탐라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라는 의미의 ‘탐라형승’이라는 글이 쓰여 있다. 관덕이란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1910년 최초의 오일장이 섰던 장소이기도 하다. 과거 오일장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닌 주로 생존을 위한 물물교환의 장터였다. 초기에는 매달 음력 2일, 7일에 열리다가 양력으로 바뀌어 현재까지도 그 날짜 그대로, 장소만 바꾸어 열리고 있다.



<그림 27> 관덕정

과거 현대식 영화상영관이 없었을 때는 여름철 저녁에 관덕정 앞에 대형 스크린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 『학교가 펴낸 우리 고장 이야기』, 29~30쪽

을 가설해서 광장에 시민들이 가득 모여들어 영화 감상을 즐기기도 했다. 현재는 공항과 이어지는 길과 옛 골목길로 이어지는 곳으로 도민속자료인 돌하르방이 앞, 뒤, 좌, 우로 지키고 있는 풍경은 제주만의 특징이 드러난다.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으로 불릴만큼 웅장한 정자다. 정자 창건 당시 상량식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관덕정을 지을 때 목사 신숙청은 전국에서 유명한 목수들을 불러지었는데,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지었는데도 다 지으면 쓰러지고, 다시 지으면 또 쓰러지곤 했다. 어느 날 삿갓을 쓴 사람이 “상냥 재물이 닳이나 돼지로 안 되고 사람 상량식을 해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사람을 희생해서 상량식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정자를 다 지으면 아무 날 아무 시에 상량 준비 하여 “상냥”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던 이가 죽을 거니 그를 인 상량식을 하라고 일러준다. 달리 방안이 없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정해진 날 상냥 준비를 하고 “상냥” 하고 크게 소리치자 큰 술을 머리에 이고 가던 술 장수가 쓰러져 죽자 그를 바쳐 상량식을 치렀다. 그 후 관덕정을 쓰러지지 않게 되었다.”²⁸⁾ 관덕정은 1448년 창건 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고 2006년 복원을 통해 오늘까지 600여년 가까이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장인 정신이 서려있는 문화재이다.

11) 제주목 관아

제주목의 역사를 담은 장소인 제주목 관아는 사적 제380호로, 탐라시대 관아시설



<그림 28> 굴림당과 북과원

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1434년 화재로 건물 소실된 후 1435년 종루, 홍화각, 우련당, 망경루 창건, 영주관과 굴림당 개건되고 대일관을 건립했으나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관덕정을 빼고 모두 훼손되어 버렸다. 『탐라순력도』와 『탐라방영총람』 등 당대의 문헌 및 중앙문화재위원회 전문가 등의 고증을 거쳐 2002년에 복원

28) 제주문화원(2011), 『제주전설집 I』, 266~268쪽

되었다.²⁹⁾ 제주목 관아는 관덕정과 함께 제주를 상징하는 역사적 장소로써 가치가 높다. 더불어 도심지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굴들을 관찰할 수 있는 북과원과 굴림당이 어우러 제주만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제주 성 안팎으로 굴과 유자나무를 많이 심었다. 굴과 유자가 익어갈 무렵 성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사방이 온통 금빛으로 물드는 경치를 영주십경의 하나인 굴림추색이라고 불렀다. 제주목의 북과원은 특히 경승이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제주도에서만 나는 굴은 옛날부터 신기하고 귀한 과일로 조정에 조공을 바쳤고 나라에서는 제주목사에게 포백을 하사했다. 조선왕조실록에 “굴은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빈객을 접대하므로 그 쓰임새가 매우 중요하다”고 기록이 남아있다.

귀한 제주의 굴이 조정에 도착하면 임금은 성균관 유생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면서 과거 시험을 시행하였는데, 이른바 황감제(黃監製)라는 특별한 과거시험이다.

조선시대 감굴이 귀하게 여겨지다 보니 그 폐단은 곧 제주도 사람들의 몫이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 의하면 해마다 7, 8월이 되면 목사는 촌가의 굴나무를 순시하며 감굴이 열린 수효를 헤아려 낱알이 적어 두었다가 감굴 수확철이면 적힌 수효만큼 납품하지 못할 때는 벌을 내렸다. 누가 몰래 따먹거나 병들어 떨어졌거나 새가 쪼아 먹었더라도 부족한 감굴은 발주인이 채워놓아야 했다. 이 때문에 민가에서는 재배를 하지 않으려고 나무를 잘라버렸다. 굴을 심고 가꾸면서도 맛을 보지도 못하고 임금에게 진상해야했던 제주 사람들에게 감굴은 독약이나 다름없었다.³⁰⁾ 조선시대 감굴에 얽힌 제주도민들의 힘든 삶의 애환이 깃든 감굴 나무들을 종류별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제주목 관아의 굴림당 주변 북과원이다. 제주도민속자료 2-19, 2-20인 돌하르방³¹⁾이 북과원을 지키고 있다.

감굴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적 콘텐츠로 키우기 위한 조선시대 황감제를 재연한 황감제 축제를 2017년 12월 2일 감굴박물관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29) 제주목관아 홈페이지 <http://culture.jeju.go.kr/culture/mok.do>

30) 신정일 (2012), 『신정일의 새로쓰는 택리지-제주도』, 395~398쪽

31) 제주공항에서 2011년 옮겨옴

12) 고씨가옥

고씨가옥은 일제 강점기인 1949년에 지어진 한일식 절충식 주택으로 제주전통 건축양식과 일식 주택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근현대사 건축 자료적 가치가 높다. 탐라



<그림 29> 복원된 고씨가옥

문화광장 조성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씨가옥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켜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내부의 마루, 툇마루 유리문 등을 살려 정비를 마치고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고씨가옥을 나서면 과거 제주성안에서 가장 큰 식수원 중 하나이자 빨래터였던 산지천이 흐르고 있다. 복개과정에 생태복원하면서 그 넓은 터가 왜소하게 재현되었다.

고씨가옥을 나서면 과거 제주성안에서 가장 큰 식수원 중 하나이자 빨래터였던

산지천 동쪽에 위치한 금산물은 산지천, 가락룻물과 함께 제주시의 3대 생명줄이었다. 금산물은 비교적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고 수량이 사철 풍부하고 물맛이 달아서 이용객이 끊이지 않았다. 산지천은 바다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밀물 시에는 바닷물이 덮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산짓물이 밀물 때 바닷물로 덮이면 금산물로 사람들이 몰리곤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발전소가 세워져 뜨거운 온수로 최초의 공중목욕탕이 되기도 하였다.³²⁾ 산짓물과 산짓물 동쪽에 지장샘



<그림 30> 산지천

물에 관련한 물장수 일화도 전해진다.

60년대 제주는 집 안에 우물이 있거나 펌프를 장치한 집이 드물어서 골목이나 동산에 사는 집에서는 물을 길어다 먹기가 힘들었다. 그 시절 차라리라는 이주민이 산짓물과 지장샘에서 물지게의 양쪽 통에 물을 길고 높은 공덕동산 집집이 물을 길어다 주고 동전 10원을 받았다. 차라

32) 제주연구원 (2008), 앞의 책, 37쪽

리는 6·25 한국전쟁 때 제주에 피난 온 사람으로, 제주극장 무성영화의 마지막 번사였는데 토오키 필름이 나오자 실직하여 물지게꾼이 되었다. 공덕동산을 하루 에도 여러 번 오르며 물을 팔아 돈이 되면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번사의 사설을 늘어놓곤 하였다.³³⁾

산짓물은 천혜의 빨래터이기도 했다. 제주시 성안에 사는 사람들이 빨래터로 물리다보니 ‘팡’을 차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서야 했다. 그러다 보니 이른 새벽부터 빨랫방망이를 두드리다보면 인근에 사는 할아버지들이 새벽잠 깨웠다고 물을 끼얹거나 돌을 집어넣으며 빨래를 방해하는 일도 허다했다.³⁴⁾ 빨랫방망이를 두드리다보면 빨래도 깨끗해지고 살림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었던 빨래터는, 아낙들에게는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을 푸는 해우소 같은 장소였다.

33) 문무병 (2014), 『삶과 문학』, 「제주풍경-제주시 공덕 동산」, 제주문화예술재단, 봄호, 49~50쪽

34) 제주문화예술재단 (2017), 앞의 책, 370쪽

3. 스토리 부여

장소성 분석에서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야기 만들기 과정에서는 장소의 숨겨진 이야기들 위주로 구성하고 정리하였다. 관심지점의 테마 스토리 라인 은 제주시 원도심 옛길을 걷고자 하는 향유자 입장에서 제주를 알아가는 과정을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주시 원도심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지였으므로 테마 스토리 라인 구성함에 있어 원도심을 제주로 대상화 하여 표기 하였다.

<표10> 테마 스토리 라인

스토리 라인	관심지점	핵심단어
제주를 만나다	1.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자연, 제주인의 삶, 민속
	2. 삼성혈	탐라국 발상지, 모흥혈, 삼사석비
	3. 광양당 터	한라산신, 광양왕, 탐라시대 나라굿
제주를 공부하다	4. 제주성지	탐라시대 성곽, 조선시대 여군
	5. 오현단	조선시대, 오현, 굴림서원
제주를 체험하다	6. 박씨초가	도심속 유일, 300년 된 초가
	7. 제주중앙성당	제주교구 최초 본당, 서양문화 도입, 민주화운동 거점
	8. 소라다방	예술인들의 사랑방, 문화의 발상지
	9. 향사당	유교 문화 유적, 여성교육의 시발점
제주를 위로하다	10. 관덕정	조선시대 훈련청, 광장, 이재수의난, 3.1절발포사건
	11. 제주목 관아	탐라시대, 관아, 굴림원, 복과원
제주를 꿈꾸다	12. 고씨가옥	한일식 절충가옥, 제주전통 건축양식

첫째, 제주를 만나다, intro의 개념으로 제주 원도심 옛길 걷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둘째, 제주를 공부하다, 제주를 더 깊이 알기 위해 공부한다는 의미와 제주성지를 통해 제주를 지키려 했던 선인들의 정신을 배우고, 오현의 삶을 통해 학문의 자세를 깨우친다는 의미이다.

셋째, 제주를 체험하다, 제주의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전통초가를 통해 과거 주거 형태를 간접경험하고,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실제 축제기간에는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넷째, 제주를 위로하다, 1901년 신축민란 당시 많은 도민들이 희생된 장소이자 1948년 제주 4·3의 계기가 된 3·1절 발포 사건의 현장으로 아픔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섯째, 제주를 꿈꾸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씨가옥은 제주 도민들이 지켜내고, 리모델링으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보존을 위한 과정을 거쳐 지켜 나갈 때 제주 원도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통한 제주의 희망적 미래를 꿈꾼다는 의미와 제주에 오기를 꿈꾼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 제주를 만나다

제주를 만나다는 제주의 탄생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주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제주도의 전체를 설명하는 프롤로그와 같은 장소인 제주도민속박물관과 탐라시대 제주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화 유적지인 삼성혈, 광양당 등으로 지리적 위치와 이야기 구조에 따라 구성하였다.



<그림 31> 도민속자연사박물관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리적 위치와 제주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제주의 탄생과정을 영상으로 보고, 전시된 돌들을 직접 만져보면서 제주를 형성한 자연환경과 그 안에서 살

아온 제주 사람들의 삶 외에도 지질학적 교육의 장을 겸하고 있는 장소이다. 1763년에 서귀포시 신호동, 하효동 마을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만들어 두 마을에서 사용하던 상여가 전시되어 있다. 상여는 초상을 치를 때 시신을 운반하는 기구로 도민속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³⁵⁾ 제주의 탄생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탄생에서부터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애주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삼성혈은 탐라국 건국 신화의 유적지다. 한반도의 건국 신화와 다르게 제주만의 독특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는 신화는 다음과 같다.

세 신인이 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맏이는 양을라, 둘째는 고을라, 셋째는 부을라라고 하였다. 이 세 사람은 인적이 없는 황량한 곳에서 사냥을 하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자주색 진흙으로 봉인한 나무상자가 바다에 떠와서 동쪽 바닷가에 닿는 것을 보고 곧 가서 열어보았다. 그 안에서 푸른 옷 입은 처녀 세 사람과 망아지, 송아지 및 오곡의 종자가 들어 있었다. 함께 온 사신이 말하기를 “나는 벽랑국의 사신이다. 우리나라 왕이 이 세 딸을 두고 말하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산에 신인의 아들 세 사람이 내려와서 장차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고 세 딸을 모시고 가게 하여 이곳에 왔다. 부디 세 사람을 배필로 삼고 대업을 이루기 바란다.” 말을 마치자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세 신인은 연령에 따라 세 처녀에게 장가들고 물맛이 좋고 땅이 비옥한 곳에 나아가 활을 쏘아 땅을 점치고 살았다. 양을라가 사는 곳은 제1도, 고을라가 사는 곳 제2도, 부을라가 사는 곳을 제 3도라고 하였다. 이 때 처음으로 오곡을 심어 농사를 짓고 송아지와 망아지를 길러 날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인구가 늘었다.”³⁶⁾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알에서 태어나는 한반도의 신화와 달리, 탐라국 건국 신화는 땅의 기운을 받고 땅에서 솟아났으며, 다른 나라에서 온 배필을 맞이하여 혼인한다. 세 공주를 배필로 정한 뒤 각자 거처할 터전을 정할 때에도 전쟁대신 순서대로 활을 쏘아 거처할 구역을 정하는 평화와 공존의 방식을 선택한다. 그 화살이 꽃혔던 돌이 삼사석이다. 영조 11년인 1735년에 부임한 제주 목사 김정이가 탐라 개국 신화의 주인공인 세 신인의 자취를 기념하여 삼사석비를 세웠다. 삼사석비는 도내에

35) 문화재청 참고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 앞의 책, 42쪽



<그림 32> 삼성혈

년이 1767년(영조 43)이기 때문에 1813년(순조 13) 석실을 세웠다는 기록 쪽이 신빙성을 가진다.³⁷⁾

광양당터는 삼성혈 정문 앞 인근에 위치한다. 제주도의 산세가 좋아 큰 인물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지맥을 끊고 중국으로 돌아가던 호종단과 관련된 전설이 있는 유적지다. 없어진 광양당을 대신하는 표석에는 “한라산 호국신으로 알려진 광양당 제사 터. 전설에 따르면 고려시대 송나라 호종단이 제주의 지맥을 누르고 떠나 때 노



<그림 33> 광양당 표석

서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삼성혈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1813년(순조 13) 양을나의 후손인 제주사람 양종창(梁宗昌)이 석실을 마련하여 화북동에 삼사석을 모아 보호하였다. 일부 자료에는 1735년(영조 11)에 양종창(梁宗昌)이 석실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그의 생

한 한라산신이 매로 변하여 거센 파도를 일으켜 호종단의 배를 침몰시켰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한라산 호국신을 광양왕으로 봉하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이를 철폐시켰으나 뒤에 다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라고 새겨져 있다.

37)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시스템

2) 제주를 공부하다

탐라시대와 조선시대 역사적 유적지로 접어들면서 제주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의미로, 제주성지와 오현단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4> 제이각

제주성지는 조선시대 제주연인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 활약했던 장소로써의 의미도 크다. 제주시를 보호하던 성곽으로, 지금도 어르신들은 제주성지를 지나 원도심에 갈 때는 성안에 간다는 표현을 한다.

제주는 한국·중국·일본 동북아시아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외부 침략이 빈번해서 방어를 위해, 조선시

대에 성과 진 그리고 봉수와 연대 등 방어시설 등이 축조했다. 그러나 관군이 턱없이 부족하고, 남자가 부족하여 군역의 의무가 여성들에게도 전가되어, 조선시대는 제주에는 여성들도 방어를 위한 군 복무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제주연구원의 『제주여성문화유적』 자료를 재인용 하여 정리하면 제주성에 제주여성들을 뽑아 보초를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남사록(南槎錄)』에는 “내가 알아보니 본주의 성안은 남정(男丁)은 오백이고 여정(女丁)은 팔백이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말이다. 대개 남정이 매우 귀하여 만약 사변을 만나 성을 지키게 되면 민가의 건강 한 부녀자를 모아 성위에다 내다 세워 여정이라고 하는데 삼읍이 모두 그러하다.”³⁸⁾ 조선시대 여군은 제주에만 있었으며, 이후 한국전쟁에도 제주여군해병이 참전했었다.

제주성지와 나란히 위치한 제이각이 복원되었다. 제이각은 운주당과 함께 호응하며 제주성을 방어하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조망처였다.

오현단은 제주도에 유배되거나 부임한 뒤 제주 교육과 학문 발전에 공헌한 성현을 기리던 굴림서원이 철폐령으로 사라진 후 제주 유생들이 현무암으로 만든 작은

38) 제주연구원 (2008), 앞의 책, 40쪽

석상을 세워 제를 지내게 되면서 오현단이 되었다.



<그림 35> 오현단 유천석

현재의 오현단은 과거 유생들이 수학하다 휴식을 취하는 뒷동산으로 쉬면서도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의미의 ‘증주벽립’ 마애명이 새겨진 병풍바위와 함께 유천석이 있다. 유천석은 학사의 처마 네 귀퉁이에 놓여 있던 돌들로, 처마에서 떨어진 빗물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단단한 돌 초차 뚫은 것이다. 노력하면 된다는 교훈적 의

미를 지닌 유천석은 수학하는 이들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3) 제주를 체험하다

박씨초가, 제주중앙성당, 소라다방, 향사당이 있었던 거리는 제주의 문화예술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 할 수 있는 제주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되어 있다.

제주중앙성당, 남양문화방송, 소라다방 등이 몰려있던 한깃골 거리에는 문화예술인들과 청년 등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당시의 지식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젊은이들의 열정이 넘쳐나던 거리로, 1960년대 말부터 옷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보세골목’이 형성되기도 하다. 인근에 인쇄소와 제주도립병원, 극장 등이 자리하고 있었고, 규모가 작고 값이 저렴한 음식점, 학사주점들이 많



<그림 36> 박씨초가 우영발

아서 젊은이들의 거리가 형성되었다. 제주 시청 앞에 대학촌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통행금지가 없던 시절 ‘불야성’을 이뤘던 낭만의 거리다. 지금은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침체되었지만 제주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되어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들이 들어선 거리다.

박씨초가는 제주시 원도심에 남아있는 유일한 초가로, 300여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제주시의 성장과 쇠락을 지켜보며 자리를 지킨 초가이다. 돌계단 위에 집보다 높은 동산이 있는데 과거 고층 건물이 없을 때는 이 동산에 앉으면 탐동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와 같은 곳이었다. 한 때는 제주 시내 내로라하는 인사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초가와 동산 등으로 당시의 제주의 주거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실제 주거공간이다.



<그림 37> 한짓골 & 제주중앙성당

보이는 뽕족한 성당 종탑은 해외 명소 못지않은 풍경이다.

제주중앙성당은 제주 카톨릭교회의 대표적 상징이었으며, 서양문화가 도입된 장소이자, 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한짓골 입구에서

소라다방 인근은 남양방송국³⁹⁾ 근접해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명동과 같은 거리였다. 한국전쟁 당시 문인들과 미술인들이 제주로 피난 오면서 다방이나 주점 등은 제주의 예술인들과 교류의 장소가 되었다. 1950~1970년대 제주의 다방들은 예술인들의 문화공간이었다. 당시 장년층 문학인들은 칠성통 주변의 다방들에서 서예, 시와 사진 전, 문학작품 발표, 문학 강연 등의 활동을 하였다면, 청년층 문학인들은 한짓골의 클래식 음악다방이었던 소라다방에서 주로 모이곤 했다. 그 당시 다방은 예술 및 공공의 공간 역할을 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한 시절이었지만 문화예술과 낭만이 넘쳐나던 문화예술 르네상스 시대라 표현할 수 있겠다. 현재 소라다방 인근으로는 젊은 작가들과 기획자들이 입주해서 다시 문화 예술의 거리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

향사당은 조선시대에는 선비의 예절과 교양을 학습하던 남성들의 교양을 위한 전용공간이었다면 근대에 들어서는 여성선각자들의 배움터이자 제주여성교육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909년 제주도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신성여학교가 문을 열고

39) 전 MBC



<그림 38> 성내교회

5세부터 15세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초기 입학생 중에는 이재수의란 때 부모를 잃은 천주교도의 자녀들도 있었다.

향사당 인근에는 성내교회와 현대극장 함께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성내교회는 성안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로, 기독교의 제주역사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장소이

다. 한국인 최초 목사로 안수를 받은 평양신학교 첫 졸업생 7인중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선교를 위해 파송 되었고, 당시 제주에 유배 와 있던 박영효의 도움으로 성내교회 예배당을 시작하였다.⁴⁰⁾

현대극장은 1940년대에 조일구락부 영화관으로 시작되어 영춘영화제를 개최했던 곳으로 해방 이후 제주도에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제주극장으로 바뀌고, 다시 1969년 2층 시멘트 건물로 개축 후 1971년 현대극장으로 바뀐다.⁴¹⁾ 그 후 1980년대 폐업 후 창고로 사용되던 곳이다.

격동의 시대를 겪으며 상호가 바뀌고, 1947년에는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과 대동청년단 제주도단부 결성식이 열리는 등 사회단체들의 집회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39> 옛 현대극장

이렇듯 영화관으로써의 기능 외에도 활용되었던 현대극장은 노후화 되어 도심 속 흉물의 모습을 하고서도 근대화 과정의 기억이 새겨진 상징적 의미로 존치여부를 두고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물이다.

40) 박찬식 (2011), 『제주여성사 I』, 「크리스트교(천주교,개신교)와 제주여성」, 제주연구원, 761쪽
 41) 김종원 (2015), 『제주 원도심, 골목에서 길을 찾다』, 「영화, 거리로 나오다」, 사단법인 제주포럼C, 219쪽

4) 제주를 위로하다

탐라시대부터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던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은 제주사람들의 광장이자 투쟁 장소의 역할도 했다. 1901년 신축민란 당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희생된 장소이며, 제주 4·3의 시발점이 된 3·1절 발포 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주도의 아픔의 장소를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림 40> 4·3 문화예술축전



<그림 41> 입춘굿놀이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는 제주도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이자 도민들의 광장 역할을 했던 곳이다.

관덕정 광장은 조선후기에는 민란의 장두나 악질 향리들을 처벌하는 장소역할도 했다. 1901년 신축민란 때 천주교도들 300여명이 피살된 장소이고, 1948년 제주 4·3 사건의 계기가 된 3·1절 발포 사건의 현장이다. 4·3사건 때 유격대의 지휘관이었던 장두 이덕구가 1949년 6월에 경찰과 교전 끝에 최후를 맞고, 관덕정 광장에 그의 시신이 며칠 동안 내걸려 있기도 했다.

2017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관덕정 광장에서 4·3 문화예술축전이 개최되어,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의 발포사건 뿐만 아니라 4.3 당시 벌어진 무수한 폭력을 기억하는 관덕정을 재조명하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70여 년 전 관덕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티브로 참혹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넋을 달래는 진혼무, 4.3 당시 희생자들을 의미하는 붉은 동백이 관덕정 앞마당에 흩뿌러지면서 관람객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이처럼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사만으로는 미흡하다. 특별한 날 외에

관덕정을 찾는 사람들은 깨끗한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를 둘러보고 기념사진 찍고 가는 관광지이다. 그 시대에 제주에 살지 않아서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의 뒀안길을 짚어보면서 아픔을 함께 위로해줄 수 있도록, 관덕정 광장에 시비 설치 등 근대사의 자취도 더해져야 할 것이다.

제주목 관아는 제주목의 관아가 있던 목사의 집무청 터로, 1991년부터 발굴 조사를 통해 2002년 12월 외대문, 홍화각, 연희각 등 8동의 건물이 복원되었다. 복원에 소요된 기와 5만여 장은 헌와(獻瓦) 운동을 통해 제주시민들의 기증으로 복원이 완료되었다. 헌와 운동은 선조들의 혼이 담긴 제주의 상징적 건물을 되찾고자 하는 제주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다. 과거에는 관아의 외대문인 진해루 2층 누각에 종루가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쳐서 성문을 열고 닫았는데, 도민들에게는 시간을 알리는 역할도 하였다. 현재 7월부터 10월까지 수문장 교대 의식을 재현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입춘 때에는 관덕정 마당과 제주목 관아에서 입춘굿놀이가 치러지고 있으며, 여름철 주말에는 야간개장과 더불어 문화행사, 폴리마켓 등도 진행하여 과거 관덕정과 함께 했던 광장의 역할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제주를 꿈꾸다

제주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고씨가옥처럼 옛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할 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며, 제주의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의미이다.



<그림 42> 고씨가옥과 산지천 갤러리

고씨가옥은 일제강점기 때 일식 건축 양식과 제주전통 건축양식의 장점을 살린 절충식 주택인 고씨가옥은 허물어질 위기에서 제주도민들이 지켜낸 의미 있는 장소이다.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고씨가옥과 나란히 자리하고 위치한 산지천 갤러리 역시 낡은 여관 2곳을 연결하여 리모델링

후 갤러리로 재탄생된 곳이다. 갤러리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목욕탕 굴뚝은 그대로 남겨 두었다.

고씨가옥을 나서면 산지천이 흐르고 있다. 산지천 하류에는 과거 모든 문물이 들어오던 곳 산지포구가 위치하고 있다. 산지포구와 산지항 주변으로 어업과 상업이 발전하고, 육지와 교역으로 객주와 중간상인들로 북적이던 제주도 최대의 항구였다. 그 명성을 되살려 도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관광 일번지로 재도약하여 누구나 오고 싶어 꿈꾸는 섬이 되자는 희망을 담아 마무리로 설정하였다.

“제주문화, 탐라인들의 삶의 독특함은 자연, 사람, 신화의 어우러짐이다. 이것이 문화적 자원”⁴²⁾ 이라고 했다. 제주원도심 속에 깃든 제주인의 정체성과 이야기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공간 스토리텔링은 지난 시대를 끌어와 새 생명을 탄생시키듯 현재를 뛰어 넘어 미래 문화자원으로 거듭 나게 하는 작업이다.

42) 서영표 (2014),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공간과 사회』, 24권 1호(통권47호), 37쪽

4. 공간 구성 : 스토리맵 제작

스토리맵은 제주시 원도심 옛길을 개별적으로 걷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이야기 지도이다. 앞면에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를 활용하여 지도상에서 지점을 설정하고 표시한 전체 지도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까지의 교통정보를 표기했다. 뒷면에는 스토리맵 제작의 목적과 용도를 표기하고, 관심지점 12곳에 대한 사진과 장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재질은 코팅종이로 크기는 펼쳤을 때는 30×40cm(A3), 접으면 10.5cm×15cm 사이즈로 손안에 쥐기 적당하여 휴대에 편리하다.



<그림 43> MAP 앞면

사학자는 학술정립을 위해 유적지를 걷고, 일반인들은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지난 역사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찾고 삶의 희망의 꽃대를 세우기 위해 유적지를 걷는다.

이야기 지도는 제주시 원도심 속 선인들의 삶의 흔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타임머신 사용 안내도이다.

제주는 동북아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주변 국가들의 잦은 침범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해상 교역 등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러한 지리적 영향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의 중심부 역할을 하던 탐라국 수도이자 제주의 핵심 지역이었던 원도심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점차 쇠락하면서 중심지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탐라국 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흔적과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곳이다. 격동기 역사의 흐름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탐라개국신화 유적지인 삼성혈, 제주에 유배되거나 부임한 뒤 제주 교육과 학문 발전에 공헌한 다섯 성현을 기리는 오현단, 300여 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주의 전통 초가 박씨초가, 제주 천주교 발상지 중앙성당, 제주 기독교의 발상지 성내교회, 탐라시대부터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고 제주사람들의 광장이자 투장의 장소였던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 한일식 절충주택 고씨가옥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맵은 독특한 제주만의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거기에 제주의 자연을 더 했다.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이어진다. 제주를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 그러한 역사의 흔적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갈 때 제주의 문화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 지도는 제주시 원도심 속 선인들의 삶의 흔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타임머신 사용 안내도이다.

제주는 동북아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주변 국가들의 잦은 침범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해상 교역 등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러한 지리적 영향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의 중심부 역할을 하던 탐라국 수도이자 제주의 핵심 지역이었던 원도심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점차 쇠락하면서 중심지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탐라국 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흔적과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곳이다. 격동기 역사의 흐름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탐라개국신화 유적지인 삼성혈, 제주에 유배되거나 부임한 뒤 제주 교육과 학문 발전에 공헌한 다섯 성현을 기리는 오현단, 300여 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주의 전통 조가 박씨조가, 제주 천주교 발상지 중앙성당, 제주 기독교의 발상지 성내교회, 탐라시대부터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고 제주사람들의 관광지이자 투쟁의 장소였던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 한일식 절충주택 고씨가옥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맵은 특별한 제주만의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학자는 학술정립을 위해 유적지를 걷고, 일반인들은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지난 역사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찾고 삶의 희망의 궤도를 세우기 위해 유적지를 걷는다.

도보 여행자를 위한 이야기 지도

제주시 원도심 옛길 걷기 스토리맵

‘활룡한 도시의 명품 요건은 골목이다’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박정마

<그림 45-1> MAP 뒷면 1

1 제주도민속 자연사박물관



우리나라 최초로 민속과 자연을 함께 다룬 박물관이다. 제주도의 탄생과정부터 현재까지 제주사람들의 삶과 환경, 통과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입장료 있음

2

탐라개국신화 발상지 삼성혈



신화 속 삼신인은 땅에서 솟아났으며, 다른 나라에서 온 배필을 맞이하여 혼인한다. 세 공주를 배필로 맞이한 뒤 각자 거처할 터전을 정할 때에도 전쟁대신 순서대로 활을 쏘아 거처할 구역을 정하는 평화와 공존의 방식을 선택한다.

* 입장료 있음

3

탐라시대 국당 광양당 터



호종단이 제주도의 산세가 좋아 큰 인물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주의 지맥을 자르고 떠날 때 한라산신이 매로 변하여 거센 파도를 일으켜 호종단의 배를 침몰시켰다. 이에 조정에서는 한라산신을 광양왕으로 봉하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었다고 전해진다.

4

탐라시대 성곽 제주성지



탐라시대 성곽으로, 제주의 현무암으로 축성되어 제주시내의 중심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군과 남자가 부족하여 군역의 의무가 여성들에게도 전가되어 여성들도 이곳에서 성의 보초를 섰다.

<그림 45-2> MAP 뒷면 2

<p>9</p> <p>제주여성교육의 시발점 향사당</p>	<p>10</p> <p>제주의 대표적 광장 관덕정</p>	<p>11</p> <p>행정의 중심 제주목 관아</p>	<p>12</p> <p>한일식 절충주택 고씨가옥</p>
			
<p>향사당은 조선시대에는 선비의 예절과 교양을 학습하던 남성들의 교양을 위한 전용공간이었다면 근대에는 여성선각자들의 배움터이자 제주여성교육의 시발점이며, 유교문화 유적지이다.</p> <p>*행사 중에만 개방</p>	<p>서울의 광화문광장이 있다면 제주에는 관덕정이 있다. 탐라시대부터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던 관덕정은 제주사람들의 광장이다. 과거 현대식 영화상영관이 없던 시절, 여름철 저녁이면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가설해 영화 상영, 시민들이 모여 감상하기도 했다.</p> <p>* 입장료 있음</p>	<p>서울에 경복궁이 있다면 제주에는 제주목 관아가 있다. 제주도 전체의 행정을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7월부터 10월까지 수문장 교대 의식을 재현하며, 여름철 주말에는 야간개장과 더불어 문화행사, 플라마켓 등도 진행된다.</p> <p>* 행사 중에만 개방</p>	<p>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한일식 절충식 주택이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씨가옥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켜졌다는 점이 의미 있는 장소이다. 최근 정비를 마치고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p> <p>* 행사 중에만 개방</p>

<그림 45-3> MAP 뒷면 3

<p>5</p> <p>교육의 명당 오현단</p>	<p>6</p> <p>300살 된 전통 초가 박씨초가</p>	<p>7</p> <p>제주카톨릭의 상징 제주중앙성당</p>	<p>8</p> <p>예술인들의 아지트 소리디바방</p>
			
<p>제주도에 유배되거나 부임한 뒤 제주 교육과 학문 발전에 공헌한 다섯 성현을 기리는 제단이다. 학사의 처마 네 귀퉁이에 놓여 있던 유천석이 있다. 처마에서 오랜 세월 떨어진 빗물이 단단한 돌 초차 뚫은 것이다. 노력하면 된다는 교훈적 의미를 지닌 유천석은 수확하는 이들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p>	<p>박씨초가는 제주시 원도심에 남아있는 유일한 초가로, 300여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제주시 원도심의 성장과 쇠락을 겪은 초가이다. 뜰에는 돌계단 위에 집보다 높은 등산과 오래된 무화과나무 등이 시골분위기를 자아낸다.</p> <p>* 주거하고 있음. 입장불가</p>	<p>제주중앙성당은 제주 카톨릭교회의 대표적 상징이다. 성당의 우뚝 솟은 3개의 종탑은 삼위일체라는 종교적 의미와 함께 제주의 특징인 삼다와 삼무를 상징화한 것이기도 한다. 성당 마당에 있는 거목들은 신자들 외에도 이웃 주민들에게도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p>	<p>과거 소리디바방 주변은 서울의 명동과 같은 거리였다. 한국전쟁 당시 궁핍한 예술인들이 제주로 피난을 왔던 시절,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자 문화계 인사들이 많이 드나들던 장소이다. 현재는 스튜디오로 사용 중이다.</p>

<그림 45-4> MAP 뒷면 4



<그림 46-1> 접었을 때 1



<그림 46-2> 접었을 때 2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 원도심 옛길을 걷고 싶은 누구라도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걷기 코스와 원도심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걷기 스토리맵 제안 연구이다. 스토리맵은 제주시 원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원에 자연경관 등을 더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작업을 통해 제주시 원도심을 누구나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보와 역사문화적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추가적인 목적은 그 스토리맵이 장소마케팅의 매개체가 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스토리맵 구성 제안의 과정은 첫째, 선행사례 연구를 통해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 적합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모델을 도출해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도심 탐방 코스들을 파악하고, 셋째, 문헌자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지의 역사문화적 장소자산을 조사하고, 넷째, 그 자료를 바탕으로 테마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스토리맵을 제작했다.

현재 제주시 원도심 내에 운영되고 있는 길들과의 차별성은 기존의 길들은 역사문화 유적지에 집중이 되었다면, 본 연구는 도심 속 자연 자원을 추가 했다는 점이다. 또한 출발지의 위치를 도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하여 산지천 인근 고씨가옥에서 마무리하는 코스로,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걷도록 하였다. 이러한 코스 설정은 내리막으로 걷기이므로 보행에 부담이 없고 탁 트인 시야로 진행 방향을 넓게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무리 지점 인근에 위치한 동문 재래시장에서 먹거리와 쇼핑을 해결할 수 있다. 소요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공간 구성을 하였으며, 차후 연구 범위를 동쪽과 서쪽으로 확대해서 연계할 수 있다.

제주시 원도심 공간은 타 지방의 원도심에 비하면 좁은 편인데 비해, 제주올레길, 제주유배길, 기독교순례길, 천주교순례길 등 다양한 목적성을 띤 길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장소자산의 가치가 크다는 의미도 되지만 옛길 코스에 대한 정립이 부족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가장 제주다운면서도 국제화에 적합한 걷기 모델 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원도심

도보여행 코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도로 폭은 좁고 차량통행은 빈번한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주차장 시설을 갖춰서 차를 두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동쪽의 주차 시설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인근으로 하면, 도보여행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국수의 거리의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걷고 싶은 안전한 도로, 보행자중심으로 도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셋째, 걷기 코스 내에서 제주 특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 공간, 제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공간, 제주만의 색을 띤 체험 공간과 휴식공간들이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야한다.

넷째, 제주시청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원도심 관련 사이트에 스토리맵 등 원도심 도보여행 정보들을 탑재해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온라인 채널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체험을 공유하고, 관심지점 인기투표 및 인증샷 공유 이벤트들을 통해서 지역의 명소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일부 유적지가 사라진 인근에 표석들이 세워져있는데, 한 장소에 표석이 여러 개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보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하나로 재정비가 필요하며, 유적지에 표석이 세워진 것이 아닌 인근에 세워진 경우, 원래 유적지 위치를 표석에 표기하거나 유적지 인근임을 명시하여 장소의 혼돈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점차 사라져가는 원도심의 유적지들과 이야기들을 정주민들과 다음세대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제주시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고희범 (2013), 『이것이 제주다』, 도서출판 단비
- 김동윤, 김동현, 김종원, 양정심, 홍기표 (2015), 『제주 원도심, 골목에서 길을 찾다』, 사단법인 제주포럼C, 도서출판 각
- 유현준 (2015),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주)을유문화사
- 신정일 (2013), 『신정일의 새로쓰는 택리지 - 제주도』, 다음생각
- 제주문화예술재단 편 (2017), 『기억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하나출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예술과 편 (2015), 『제주성 총서』, 도서출판 각
- 제주연구원 편 (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제주연구원
- 제주연구원 편 (2009), 『제주여성사 I』, 제주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편 (2014), 『우리학교가 펴낸 우리고장이야기』, 제주시Ⅲ동 (洞)지역, (주)건국 디자인 편집실
- 제주문화원 편 (2011), 『제주전설집1』, 제주문화원

《학술지》

- 강경희, 김태일, 박경훈, 이운형 (2015),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규명 및 보존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학센터, 제주학연구 23 김동 (2015), 「원도심 재생을 통한 제주형 인문도시의 모색」, 경기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시민인문학 28호
- 김영순, 정미강 (2008), 「공간텍스트로서 ‘도시’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텍스트언어 학회 24호
- 김영순 (2010) 「공간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재구성과 공간 스토리텔링- 검단과 춘천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인문학콘텐츠학회 19호

- 박승희 (2011), 「지역 역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방향과 실제」, 한민족어문학회 63호
 서영표 (2014),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공간과 사회 제24권 1호(통권 47호)
 엄상근 (2013),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논문》

- 김은선 (2009), 「공간 스토리텔링 기획 연구」, 전남대대학교 석사 논문
 김진철 (2011), 「제주도 대정성지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제주대학교 석사 논문
 홍소정 (2015) 「스토리 맵을 활용한 이야기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이야기 산출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 논문

《정기간행물》

- 문무병 (2014), 『삶과 문화』, 「제주풍경 - 제주시 공덕동산」, 봄호, 제주문화예술재단

《웹사이트》

-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kor/main/main.do?rbsIdx=1>
 삼성혈 <http://www.samsunghyeol.or.kr>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홈페이지 <http://jicea.org/>
 제주목관아 홈페이지 : <http://culture.jejusi.go.kr>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http://museum.jeju.go.kr>
 제주역사문화연구소 카페 <http://cafe.naver.com/jejutour77/448>
 제주올레 홈페이지 <https://www.jejuolle.org/>